朝鮮日報

發行所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朝鮮日報社
振替口座京城四〇九九番

보라이무서운現象을
어린民衆들의呻吟하는人間地獄

吾人은昨紙의三面을通하야京城府勤業係의調査한內容의一端을報하엿다『昨年十一月末限으로現在京城府內에서相當한動力을使用하야相當한生產額을收入하는工場만으로調査한結果工場總數는七百三十個所이오職工總數는一萬四千二百二十一名인데이職工의總數中으로부터中國人과日本人職工을合한一千九百二十一名을除한다하면一萬二千三百名은모다朝鮮人男女職工이오또이朝鮮人男女職工의總數로부터少年男女職工의數를年齡의別로써表示한다하면十二歲未滿乃至十五歲未滿의少年男子九百八十六名과少年女子五百五十八名을合하야一千五百四十四名이라』한다이와갓은現象을우리가無神經하게觀察한다하면오즉人間生活의必然한現象으로認識하게될는지모른다그러나우리가意識을가지고우리民族의生活을도라다본다하면이것은참으로무서운戰慄을禁하지못할事實이다

京城府內만의重要한工場에만限하여도一千五百四十四名의多數한어린民衆의勞働者를볼수가잇다하면全國을通하야會社銀行工場其他모든方面으로詳細한調査를맛친다하면얼마나어린民衆의絕對多數가이와갓튼慘憺한境遇에陷하엿는것을想像할수잇슬것이다毋論資本主義의缺陷은왼世界의無產大衆으로하야곰다갓치搾取에對한苦痛을늣기게한다그러나우리民族의生活과갓치急激한破滅의激流에서沈痛을늣기는生活은업다殆히民衆의全部가經濟的被搾取階級으로化하는것이事實이다보라朝鮮에잇서々々우리民衆의經營으로된生產機關이몃個나잇는가殆히全部가外人의經營이다이러한環境을가진우리의生活이破滅로부터慘憺한勞働으로化하지아니할수업는것은必然한過程이다그리하야多數한民衆은少年男女外지도外人의生產機關에서피땀을흘리고살기를부르짓게되얏다上述한바와갓치多數한少年이可憐한工場奴隸의生活을繼作하는것은赤裸々히게民族生活의經濟的破滅을證明하고잇는現象이다

그들은十二歲未滿乃至十五歲未滿의少年男女들이라한다그들의年齡은百年長壽의將來運命을開拓할修養時期에잇는어린이들이다그들은왼즉이幼年時代로부터生活苦의深刻味를맛본다工場의煙煤는그들의呼吸하는空氣이오工場의規則은그들의搾取되는敎訓이다天眞이爛漫한進就의精神과躍動하는生命은모다이工場制度의鐵則下에서消耗되고마럿다口에乳臭가尙存한그들은軟弱한어린勞動力을팔어서부터씨앗기가를始作하기에刹那의閑暇가업게되엇다하면그들의將來는오즉排除할수업는沈痛한悲哀가蓄積할뿐이다燦爛한文化의施設도享樂할權利가업스며高尙한敎育의雨露도沾濡할機會가업다이것이얼마나그들어린民衆의可憐한境遇이며따라서이와갓치可憐한境遇에陷한어린民衆을抱擁한우리社會의얼마나큰不幸이라

엇더한나라를不問하고現實社會의制度下에잇서々々는다시말하면有產階級과無產階級이依然히對峙하여잇는社會組織下에서는이와갓튼缺陷이업슬수업다그러나우리社會는經濟的條件이남들과不同한여러가지의特殊한環境에잇서어린民衆들外지도漸々奴隷的勞働의生活苦를맛보게되엿다이와갓튼現象은刻々으로激甚하야올것이다이것이어찌咫尺할무서운現象이아니고무엇이랴民衆은弟妹이오또는子侄인어린이들이이무서운人間地獄에서呻吟하는이沈痛한소리를듯는가이것을우리는救濟하여야할것이다

近代心理學上의非自覺的體驗 (六)

第二章 夢

靈魂은兩種狀態로表現되나니一은自覺我의醒時오一은夢時와醒으로무런夢에이르기까지靈魂의全部인가別段으로一種狀態를採取할것인가 또는醒夢의分別됨이醒時에는靈魂의甲部作用이되고夢時에는靈魂의乙部作用이되는것인가이러한것은吾人의아는것으로決定을할수업는것이나醒夢二者가定時內에잇서서로交代하야醒이안이면睡인二者의一에는반드시잇는것이다

그러면同一한我로어느써에는醒하고어느써에는睡하는가 그러한것이다 同一한我라하는證據가二種이잇스니 一은自我로말미암어直接確認하는것이오一은一人이記憶하는內容으로證據할지니醒時에는夢中의情形을能知하고睡時에는醒時의經歷을夢及하는것이다 그럼으로醒의我나夢의我란것은交代하는自覺性이오同一한靈魂의兩方面이다

夢에關한理論은甚히複雜한것임으로그의詳述할수는업스나그重要한것을擧하면

(一)醒我와夢我가雙方의記憶하는內容으로關係가互有한것은이미界述하엿거니와醒의我가夢의我를想及하는것과夢의我가醒의我를夢及하는二者는絕對로相同함이업나니醒의我가夢中體驗을想及하는째는甚少하고此項의體驗을把捉하는것도그當時의湊合한자파一如하되夢의我가醒의我를夢及함에는山河大地와萬物의類에版하야原形과一如하나그結合하는것인즉醒時와相反省으로醒의我가夢中의體驗을記憶하는것은그特定의記憶이오夢의我가醒時의體驗을夢及함에는다만平日의經驗한것에材料만取하야뜻대로增損하고顚倒하는것이다

(二)或은醒時의體驗은意義가잇고方向이잇스나夢時의體驗은意義도업고方向도업슴으로夢은純粹한聯想이라하지만은夢境도意義와前後의關係가업는것이안이로되實際를보면往々히相反되는것과事의不可能한것이잇스나夢의我는當初에아지못한것이다

(三)甲夜의夢이乙夜의夢을憶及하는것도잇고甲夜의夢이醒時에中斷되엿다가乙夜에繼續되는것도잇고同一한夢으로屢夜에連續하는것도잇서그럿것은罕見하는것이나實은잇기도하는것이다

(四)奇異한것은夢中演劇이니睡時에그所謂我라하는것이忽然히밟事로써人에게詢하면그人이곳對答을하나니그所謂其人이란것은他人이안이라곳我이라하는것이一種解釋이오或은靈魂은一이나我는一個我에그칠이업슴으로其人이란것도同一한靈魂의他我라하는것이一種解釋이다 그런데同一한靈魂中에多數한我가잇는것은不可能한것이안이다睡하는我가我의某種狀態를안다할지라도그아는것은別개의他一人의告함이잇서그人의口로부터알게되니비록我의自知하는것이라도外形으로말하면他人에게어든것과갓다

(五)夢의我가材料를醒한我의平日記憶에取하야다시製作함은그先後間에一定한條理가업는것이안이나恒常 經驗界와는相反되고不可能임으로或은夢中의內容이무슨原則을조처이러케集合하야이룬것인가또엇지하여此時에는홀노此夢만잇고他夢은업섯는가한다

大抵 夢中의材料는覺攝的에屬한것이만음으로取하는材料가最近의經過한事情이恒常되되다만最近의經過도悲戚과喪事에關한것은夢境에出現됨이甚少하고過去가甚久한것곳醒時에記憶이적은것이夢中에出現하는것은年少時의入學情形가튼것이오感官의刺激은將醒할際에夢中에假入하나그러나顚倒錯亂하야常情보다迥異한것은彎聲으로銃聲을지으며手로觸傷하는것과가튼것이다

이러한말은이써에엇지하여此夢이出現함인가하는理由에對하야는아즉解釋치못한것이나『푸랜드』는一種假設을創作하야夢의內容을二種으로分하엿나니一은潛伏的이오一은明顯的이다潛伏이란것은夢의意義오明顯이란것은夢中有形物의表現이다『푸』氏의말에는그潛伏的內容을固有意義라或일음하엿나니自我의바라는것으로부터이루지못한願望이된다는것이다 그러나『푸』氏와그徒弟들은每夢 이루지못한願望으로써性慾에돌이여보내ㅅ스니이말은過甚한것을免치못하는것이며또그夢中의某種象徵으로써願望가운데의某種成分을代表한것이라認定하는것은모다意로써解釋한所以이다 그러나多數한夢境가운데表現하는象徵은모다이루지못한願望됨은疑心업는것이다(夢中에表現되는象徵은엇지하여今日에甲種象徵이되고明日에乙種象徵이되는가할은아즉도解決이되지못한問題이니뜻하건대自覺性의位態가그새이에作用됨인가한다)

그러나所謂願望이란것은何物인가하면醒我의能히明瞭치못하야그本身이能히履行하지못할것도잇고倫理의關係上으로當然히履行하지못할것도잇스니이는그願望이一朝에出現하면醒我의羞恥가됨으로또쳐버리기도한다

夢我의夢은누가식이여오게하는가非自覺이란것의指使가될뿐이다그러면非自覺이란것은靈魂의全部이나그런것도안이오靈魂의一部分곳願望이非自覺의賁撥한것이니이一端은靈魂의特別部分을窺見할것으로夢我의體驗中에잇서影響을發生하나니此物이곳下自覺이라下自覺性의名은後文에도屢々히引用할것이지만은一個我의自覺的體驗으로靈魂이組織된中의特別成分이隱然中에臨遣되는것은곳下自覺性이니所謂下自覺性이란것은참으로上下의區別이잇는것이안이다 心理의現象은空間으로더부러干涉이업고强하야이나名詞만取하야空間에譬함으로억지로쓰는것이다그러나그意의所在는上文에依하야明瞭하다

雲南紀行 (四四)
春風 李壽裔

猛哉라盜賊의變을當한後로는窮하기더욱甚하야러진衣服은縫修가無路하고밤이면잠을이르지못하야五指의巡警隊를袴裡에派遣하야搜索한즉一夜의拿捕가四五十箇의虱子이다몸이生時에窮하야즉夢도不佳하야煩惱가無變하다아이고故鄕山川아々々々

此日逐行四十里

第六十一日一月二十三日辛卯陰

此日早朝에貴定縣을發하야十五里地에서朝飯을喫하고다시行하야十里되는『아징촌』에다다르니이웅장초는鎮名이라仍히地名이되얏다幾戶人家가此에在하야買賣業을營할뿐이다다시十餘里에龍頭關에到하니이는高々한嶺上이라此로부터下하야三十里에龍里縣이有하니이龍里縣은小邑이라雪山縣에比하야稍大하나亦無足可觀이다此에到하니이미夕陽이라일즉이便安히쉬이려하얏스나밤이깁도록群衆의喧鬧하는바람에잠을이루지못하얏고겨우잠이들랴말랴할時에一箇行人의이가는소래에몸에소름이끼치며잠을이루지못하다大抵이行人은누구인고하니姓은蕭오名은君相이라銅仁軍隊에일즉이排長의任에當하엿든者이니革命時에排長이라胸無點墨한무식군이니歸道에서부터面目이熟한者이라姜渭君이余에薦하야貴陽外지一路의同行하는터이니爲人이甚히陋醜하고몸에疥瘡을습니여治然히余가本國에在할時에海南으로무런집으로向하고도라오든써와갓다이者를멀니하려하나中國人은疥瘡을病으로認치아니하는터이라排斥한즉너무甚한사람갓하야그대로同行은하지만은마암에항상서림치함은免치못한다뎌욱치위가甚하야안숙치못하다

第六十二日一月二十四日壬辰陰

此日早朝에龍里縣城을發하야二十里에朝飯을喫하고 다시十數里에『안지』에到하야前路를下瞰하니山川이此에至하야明朗하여지고妙한峰巒과精潔한氣象이不言可知幾十里外에大地가生할너라行人들과隨同隨答하여가며二十里의路程을다시行하야한고개에올나서々下界를바라보니萬戶都會가目前에生하고녹흔집웃흔커자가半空中에森差한지라이것이곳貴州省의首府貴陽城이라左高右低를指點하여가며十里路에貴陽을當到하니이곳이곳多情한辛酉年을客淚로써보내고반가운壬戌年을當하야無心一齒를添하고新年을逢하야無量新事業을禱祝할곳이다城裡에入하야精潔한客棧을차저一住코저하니店主等이余의行色이草々함을보고住宿을許諾지아니하는지라할일업시苦役夫의住宿하는客棧을차저省城南門內紅牌坊鄭仁和旅館에投宿케되얏다그住宿하기不便함은不須多言이라이로부터雲南昆明까지이十八大站即一千二百六十里라아즉도압길에雲山이漠漠하니嘯哉나이可憐虫이여胡爲乎來世오眞是

如此江山雖難行 莫將來路作歸程
霧雲蹤跡縱迷跡 踏盡無多見帝城

第六十三日一月二十五日癸巳陰

終日토록客棧樓上에書籍으로벗을삼아無聊함을免하얏더니밤중에腹痛이甚하야便所를가려하나피여노흔熱炭은寒灰를作하얏고붓처노은燈火는黑暗으로化하엿다찰고자는포대이는어름가치서늘하고덥고누은입을은冷鐵갓치찬독어리며아래배를움켜쥐고數萬里故國에계신어마님을차저보니꿈속에聲音이오臟腑하리엿것이라에고지고呻吟하니夜半前際의鷄鳴聲과한가지가러스며主人々々불너보니樓下鼻聲은風聲이로더부러轟々한다날밝기를기다리고天井만처어다보니 光을通한牕隔路는閑々히寂寞大의夜霧白色을빗치운이오이때나밝앗는가나밝겟는가부지런히살펴보니컴々한때는夜獸의삭킨배뇌야 界混沌에無形物일뿐이다이故鄕을 각하여보니깁고깁흔구름은魂路를막아스며놉고놉흔山岳은無情히疊々하다오날밤貴陽城中苦痛하는情勢를漢江上金華下五七開草屋中에게신阿爹阿媽가아르시는지無量한깁흔恨을呼訴할곳업섯더라한참동안이리궁갓뒤궁하는차에樓下에져鬼語問答갓흔말소래가들니거로한번主人을불너누앗다『獸么無客』數三次에야겨우대답한다는것이惡聲이다이에主人은鴉片燈을가지고올나왓다이에그鴉片燈을빌어가지고便所에를行하다가失手하야燈을地上에써러트리매錚然一聲에고만鴉片燈이先天物이되얏다店主는이에嘆美하며換舊得新할늘때향이며긴다余는할일업시此늘賠償하얏다(鴉片燈模型의說明 이잇스나必要한것이업슴으로省畧함)

第六十四日一月二十六日甲午晴

此日朝飯時에야腹痛이僅止함으로本家와及모든親友親戚에게片信을다가보내엿다宛名如左

本家及公州岳家
德源趙章호
山東省濱縣公署曹錫時字洲霖
北京金愚
蜡(三〇)

第六十五日一月二十七日乙未陰

아々이날이즉夏曆辛酉섯달그음날이다萬家貴陽에送舊迎新하는거믄百姓들 우리안에돗삽고 안반에떡치고 기동에 입춘부치고 을안에며쉐우고 天地君親師位에祭祀지내고 門前에 香을피고거리에 떡총놋고 一家食口團欒하여 새옷내여몸에입고 우승으로 이해를보내는것을보고 無聊한客館에 안저스면兀然히누엇스면더진듯이셧스면날뚝갓치우러도볼재업고우서도알재업시무늠압헤는짐그릇벼루하나右便에난蕩書卷 左便에술한병사다놋코능뒤에는똥무든客館임을거듭々々거더노코一身에는두경맛고남은옷 비가탱이바지와네소매외쳐고리벼선업서발벗고 코씨고눈뜬거울써 준수갓치써려지고새압볼가치소사오는눈물로이해를넘기는것을生覺하면骨節은마듸마다隅ㅣ는구비마다녹고녹아이세상에나몸이잇나냐마냐아모래도업는것갓하여손을내여내건신을내가만져보니皮膚도예와갓고骨節도녹은배업건만은청신이간곳업고氣脈이무드려워그리함이더라郎君님은게집처럼재롱아튼사람처럼오른팔로턱을괴고왼팔로手巾쥐고몸은노처갓치動함이업것만쳐고리끈은腸ㅏ에넘고너튼마암이東에갓다西에번쩍靑山에도근너가고綠水에도臨해보며故鄕에도갓다왓나亂雜한生時魂魄 꿈속갓치분주하니二三四分모든숨은一次에다쉬이면이른바한심이라는놉한숨석거넉는코안쳐짜가一幅箋紙를손으로무심이細에作紙一張을쏫다(未完)

詞藻

風詠樓 安邊 金炳璇
風詠高樓倚昔時 先賢去後更其誰
松影近當涵欲翠 杏花恰似古壍垂
豈從多士遊觀美 雖是蟲夫敬慕知
陽々寒服登臨晚 仰誦千年敎化遺

ESPERANTA KATEDRO
(에쓰페란토講座) (104)
金 億

文 法

(믿하엿으면 한다。)

117. [說分辭의 命令法와 假定法에 對한 注意。
意味가 明瞭하여지는以上에는 이러와갓치 쓰는것이 便宜합니다。
Kiam mi venos morgaŭ, estu skribinta la leteron=Kiam mi venos morgaŭ, antaŭe skribiu la leteron.
내가 明日오라고할때에는, 便紙를 다쓰라。
Mi ne farus la eraron, se li estus dirinta la veron.=Mi ne farus eraron, se li antaŭe dirus la eraron.
만일 그이가 眞實을 말하주엇드면, 나는 잘못을 하지안을것을。

118. 間投詞(interjekcio)
間投詞라는것은 感情을 表하는것으로, 單獨으로나, 또는 文句속에 너키로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文章獨立이요, 조곰도 꼽의 構成에는 關係가업습니다。
adiaŭ! 告別詞
ba! 輕蔑의뜻. ho! 오오, 놀내는뜻.
fi! 憎惡의뜻. hura! 萬歲 (喝采)
ha! 아아 (驚嘆) Jes! 그래 (承諾)
he! 아아 (부르는뜻) nu! 자 (재촉의뜻)
hej! 야 (부르는뜻) ve! 설다 (悲痛)
副詞와 그밧게 다른말도 間投詞가 됩니다。
bone! 좃타 Jen! 자 보아라
Brave! 잘한다 Ne! 아니. 아니야
Certe! 分明 tute ne! 斷定코. 아니
Kompreneble! 勿論 tondro! 千萬에
for! 가거라 Dio mia! 아이구.
helpu! (help'n) 살녀다우,
Diablo ĝin prenu! 망측도 하다。
Kion al la diablo vi faras!
너 정신이 잇니。 무슨짓이냐。

家庭에 外出에
注意周到한君은『오이소레』라고救急의使命을全케하는
懷中良藥 寶丹
一時도吾身에放치안는故로無病과極히元氣로다

高級懷中藥 寶丹
○寶丹의活用은
頭痛眩暈는나時 — 頭痛眩暈人込에醉한時의應急手當으로到處에맛는懷中藥은寶丹唯一
過飲過食한時 — 暴飲暴食으로胃腸을害하며又食傷、水傷한時는消化를助함에偉効잇는寶丹에限함
腹痛吐瀉한時 — 腹痛吐瀉、其他惡疾의豫防으로消化殺菌力의强烈한寶丹의一匙
旅行散步의時 — 旅行散步의必携로하야船車酒의醉氣附毒消에用하야神効를發揮함은寶丹뿐
時候當한時 — 時候當으로부터意外重病을惹起하는故로時候의變할때마다寶丹一匙를복
定價(金卅錢、金卅錢、金五十錢、金壹圓、金貳圓、金參圓、金五圓、金拾圓)
金五拾錢以上寶丹匙添付 金參圓以上家庭用瓶入
本舖 守田治兵衛
本店 東京市下谷區池之端仲町 振替東京二八五番
支店 大阪市東區平野町二丁目 振替大阪五七一三九
到處藥店에잇슴

第拾六期決算公告

資產之部	圓
前期繰越損	四九、八〇六、一七五
振替貯金	一、一一七、六二
當座預金	一、一一二、六八
不動產	七〇、六七三、五〇
什器	三、一六〇、一六
機具	三八、二二八、〇八
有價證券	五〇〇、〇〇
讓渡原料	一、八四九、五七
紡物製品	一一、四一二、七〇
讓渡貯藏品	二、一〇一、三〇
織物貯藏品	九三七、四二
現金	八、五九
受取手形	四、一九八、一一
讓渡製品	二一、六九七、八一
賣掛先	一三、五四六、七六
假拂金	一、九〇九、七八
計	二二一、二六〇、二六五

負債之部	圓
株金	一〇〇、〇〇〇、〇〇
借入金	八八、五七六、七二
割引手形	二三、九八四、二七
假受金	三、六三一、八八
支拂手形	二、九二七、八一
買入先	八三〇、五四
未拂工賃	二、一七九、八六
當期純益金	一、一二九、一八五
計	二二一、二六〇、二六五

利益處分
一金四萬九千八百六圓拾七錢四厘 前期繰越損
一金壹千壹百貳拾九圓拾八錢五厘 當期純益金
差引
一金四萬八千六百七十六圓九十九錢也 後期繰越損
右와如히報告암
大正十三年四月 日
京城織紐株式會社

緊告

我等은東亞日報의醜惡한內幕을民衆의前에暴露하는同時에輿論을喚起하며그罪惡을聲討하야斷然히『最後의手段』을取코저하얏던바幸히該社에서는問題의焦点인人物을退社케하는等方今內部의廓淸을進行中임으로我等은該社의成行을보아態度를다시決定키爲하야『最後手段』은一時中止케되얏슴으로이에滿天下의同志의게告하노라그러나該社에서退社케된人物中一人이라도또는그와同類인人物이該社重任의椅子를占하게되면그째는다시奮然히起하야一毫의容恕업시『最後手段』을斷然히決行할것을이에聲明함

在京城東亞日報聲討有志一同
代表 李憲

壹組特價參圓五拾錢賣出
東華理髮器會社特製品大革新賣出
理髮機械器具並付屬品
個人一家族一團體一層共同使用키便利한唯一의壹組器械用品의特價提供

十種三圓五拾錢
一組器品名
理髮機械 一個
面刀 一個
面舍 一個
鋏(가위) 一個
竹舍 一個
덧빗 一個
面刀舍 一個
機械油 一瓶
귀호비개 一個
兩手用及片手用은需用家自由로드리옵
眞正한銅鐵製特製이오니諸賢은覺醒하시오
總代理店 東華理髮器會社 京城府鍾路二丁目八七番地
大正商會

我全州李氏大同宗約에緊急重大한事案

我全州李氏大同宗約에緊急重大한事案을議決하기爲하야左記와如히臨時總會를開催하옵는바此時機는實로我宗約興替의攸係한者이오니치마르시고擇席하심을千萬敬望. 事案에關한詳細內容은臨時總會發起書에記在하얏사오니此를求코저하시는宗族僉位는京城府臥龍洞三十八番地의本準備所로請求하시압

一、日時 五月三十一日(陰四月二十八土曜日)午前十時부터
一、場所 京城府臥龍洞一三九番地大同宗約事務所
一、議案 (ㄱ)金收文遺稿의件 (ㄴ)規則及任員에關한件 (ㄷ)約長辭免에關한件

全州李氏大同宗約臨時總會準備所 白

"EXTRA" Ideal Fountain pen
權威잇는엑기쓰도라ー萬年筆!
一本을貴下의座右에備置하서요
然則直히貴下의光明과幸福을增進함니다

엑기쓰도라ー萬年筆은……펜先의具合
……亡한것과如히輕快하고耐久力에富함
理想의品質과低廉한價格은
他品의追從을不許
五拾有餘種目錄無代進呈
또한目錄에는附錄으로하야萬年筆使用者에게반다시必要한萬年筆의撰定法其他萬年筆에對한重要記事가잇슴니다故로本目錄必要하신양반은新聞名을記入하시고製作元에申込하시면無代進呈함
엑기쓰도라ー萬年筆製作元
東京市小石川區原町十二番地
明盛進堂製作所
振替口座東京三八〇一〇番・話電長小石川四四六番

澤田順次郎先生新著 四六判箱入美本 特價金壹圓七拾錢 代金引換送料卅二錢 前金注文送料八錢
圖入 處女及妻の性的生活
▼女子의肉體의構造及性慾作用을明快하게說明하는最新刊
本書는處女時代로부터妻、母에至하기外지女子肉體의變化內面的性慾衝動本能的發作等을心理的及肉體的에分하야男子는勿論女子라도生覺나지안는微妙한点까지解剖研究하고其說明이平易하며親切한著者獨特의筆은何人이든지容易히了解케하고또其甚大한趣味와實益과는類書의追從을不許함▲女子는本是부터男子라도목一讀을要할好參考書이다
▼希望者는新聞名記入葉書로(圖入)送하라申込하시면代金引換小包로送함
東京麻布區富士見町六 振替東京四九四八四番 電芝五〇八〇番 正文社

모루히네中毒 癮疾 專門治療
모루히네에인사람에限하야專門으로入院治療케하오니諸位는照亮하시오(詳細난來問或은書信으로問議하시면親切仰答홈)
京城府武橋町四
濟生醫院特設科
電話光化門四九一番

君이여 又三日이나
通하지안엇서요
溜飲、頭痛便秘가因、무히
サンーサン 參天堂의
건운한
健運丸 을服用하시요
各地藥店에有함、卅錢부터壹圓

大阪市北濱 參天堂合資會社

中國政局

中露交涉復活有望

莫斯科政府에서『카』氏에게電命

(北京電) 中露交涉이停頓中에在한今日에兩國은모다交涉을復活코저焦慮中인은事實이다 十日莫斯科로부터北京政府에達한來電에據하건대 (一)莫斯科政府는交涉을繼續키爲하야『카라한』氏로繼續交涉의任에當케할意嚮인으로『카』氏撤還說은事實이아니오 또 (二)最近莫斯科에到한『따포찬』氏로부터詳細한報告가達한바莫斯科政府는國內各方面과協商한結果一種對應策을決定하고『카라한』氏의게訓電을發하엿는데其內容은『카』氏에게速히交涉을復活키爲하야適宜한措置를取하라는內訓이엿다
今後交涉의復活與否는全혀『카라한』氏의態度如何에달녓스나中國政府는莫斯科政府의眞意가右와如하면『카라한』氏의態度도不遠間變할줄로期待한다더라

日佛密約의無効抗議

日佛兩國에對하야中國政府에서

(北京十二日電) 日佛密約이締結되엿다는傳說이잇슴으로中國外交總長顧維鈞氏는駐中佛國公使에向하야同密約에中國主權에關係되는것은中國의承認이업스면無効라는旨를聲明하라고抗議를提出하얏다더라

無電問題協定의辦法

(北京電) 無線電信問題에對하야中國政府에서는日米間에何等의偏重이無한協定辦法을作成하야去十日閣議에서交通總長吳毓麟氏가說明하얏는데此는當分間嚴秘에附하기로하얏다더라

中露國境赤軍兵力

八箇所에三萬八千名

(某處着電) 中露國境駐屯赤軍의兵力은如左하다더라

海參威	五,〇〇〇人	웨르후네	二,〇〇〇人
尼市	二,〇〇〇	스파스크야	一,〇〇〇
하바로스크	一三,〇〇〇		
석라코에	三,〇〇〇	合計	三八,〇〇〇
買賣城	一,〇〇〇		
恰克圖	三,〇〇〇	以上三個師團의兵力	

會審衙門回收要求

外交部의正式通告

(北京電) 外交部에서는十日閣議의同意를得하야上海會審衙門의無條件回收를意味한通告를外交團首席公使의게送達하고 또 同時에速히本案의解決을要求하엿다더라

吉林公署吉林에復歸

去五日부터移轉을開始

(某處情報) 吉林公署는長春에位置하얏스나今回에畢竟吉林에復歸하기로되야去五日부터七日까지每日吉長鐵道線에貴賓車及各等客車의增結을行하고荷物用으로三十噸貨車二十輛을配置하야移轉用에供하며尙又市內外의馬車全部를徵發하얏다는데新任督軍張作相氏는十二日에着吉하리라더라

歐米情報

排日을絕對主張

加州의各團體에서는 大統領을激烈히攻擊

(桑港十二日發電) 排日法案에對한大統領『쿨리지』氏의態度에滿足치못하는加州各團體는絕對的으로排日을主張하야大統領을激烈히攻擊한다더라

佛國總選擧結果

十二日朝々지에判明된것

(巴里十二日電) 政府側發表에依하건대今日外지의左翼聯合派는既히二百六十八의議席을得하얏고國憲派聯合은二百二十七을得하얏다 又共產黨과急進派의當選者는七十三이라더라

佛政府反對派優勢

下院議員의選擧結果에서

(巴里十二日電) 佛國下院議員總選擧는總數九十縣內에서二十六縣의結果는左翼派에向하야大異動을示한다現首相『포앙카레』氏反對派는分明히優勢이다然이나急進分子가下院을支配할수가잇는가업는가를推測하기에는아직不可能하다더라

右翼黨千四十議席을喪失

(巴里十二日電) 本日總選擧의形勢는至今外지는左翼諸黨이가장有利하고右翼諸黨은발서一千四十議席을失하얏다더라

左翼派當選者多數

(巴里十二日電) 佛國下院總選擧에서左翼聯合派는既히九十名의多數를得하얏다더라

佛內閣總辭職乎

「프랑」貨는下落中

(巴里十二日電) 佛現國務總理『포앙카레』氏의敗北는발서確實함으로此際에辭職하리라하나後任으로는『유리오—』氏及『석리안』兩氏의呼聲이놉흐리이며佛國『프랑』貨는下落中이라더라

「포」氏巴里에歸還

(巴里十二日電) 佛國國務總理『포앙카레』氏는『미유스』縣으로부터急遽히巴里로歸還하는中이며歸還한以後에는即時閣議를開하고善後策을決定할豫定이라더라

政府側의最後劃策

再解散도不辭乎

(東京電) 淸浦三大臣이密議한內容은水野內相이西園寺公의意嚮으로政府는躊躇하지안코斷乎히國策을遂行할것이라고述하얏다其解釋에對하야는鈴木法相은再解散도辭치말라고主張하고陸相도또한此說에依하야繼續하야總選擧善後策의謀議에移하얏는데本黨과反對派의數에는當初부터六十名內外의差가有하엿스나開票第一日結果에依하야明白히政府의豫測이事實인故로內相은今後最後의奮鬪를試한後에解散을斷行하라는强硬한手段에出할는지도不知하는터이며此際에地方長官六、七名의交迭을斷行하야此를準備함이如何할가하는激烈한意見도有하얏지마는其後開票第一日의實績에鑑하야更히嚴選한後에左와如한當選을豫想하고極力으로與黨의增加를圖하기로하고散會하얏다더라

本黨	百四十名
革新	二十八名
憲政	百二十五名
實業	八名
政友	百二十名
中立	三十四名

善後策協議

三大臣이再昨早朝에

(東京電) 水野內相鈴木法相藤村遞相은十二日早朝某處에會合하야壁頭에水野內相의園公訪問에對한顚末을報告한後에最後의當選을豫想하는同時에其善後策에對하야鼎坐超議가約一時間餘이엿니더라

閣議協議事項

(東京電) 十三日定例閣議는午前十時부터首相官邸에서開會하고松井外相의最近外交經過에對한報告가有하고次에今回總選擧의結果가政府與黨의慘敗、護憲派의大勝에鑑함에對하야政府는如何한態度를取할가를協議하고其他內外重要政務를審議한後午後一時에散會하얏다더라

各派當選別

警保局의調査

衆議院總選擧의結果는暴風雪로因하야投票를來十八日로延期하게된北海道九區를除한外에今十三日內務省警保局에서調査한當選者黨派別은左와如하다더라

憲政會	百四十名
本黨	百二十名
政友會	百〇一名
革新	三十名
實業	八名
無所屬	五十七名

政府黨慘敗

(東京電) 十三日午前十一時까지判明된當選者는四百五十三名으로其黨派別은

憲政會	一五三
政友本黨	一一二
政友會	一〇四
中立	四四
革新俱樂部	二九
實業同志會	一〇
農民黨	一

只今政府側에서中立議員、實業同志會及農民黨의全部를引入한다하여도其數는百六十七名이오護憲三派의合計는二百八十六名에達하야其差가實로百十九名이라

本黨敗戰의原因

樂觀한過失

(東京電) 政友本黨의不況은敵치못할일이지마는其選擧를詳細히考察하는本黨은어느程度外지는敗戰의兆를看取하고잇다現今一方으로는護憲派로地位를變하고잇는것으로歷々히看取할수가잇게되얏다此에對하야는本黨側에서도非常히不滿히思하는바이지마는其主因은政府側의選擧觀測이拙劣함에잇다한다全然히形勢를樂觀하고本黨이다시一步의努力을要할것을充分하다고樂觀的으로報告한外닭本黨側에서는全然히放心한것이라此에反하야政友會는極히隱忍하는態度를取하야最後外지形勢의恢復에熱中한努力의跡이分明이나타나게되얏다長野縣의小川、和歌山縣의岡崎氏가收한勝利는實로最後外지奮鬪한結果이라할수가잇스며또本黨內에서도選擧委員長에對한非難이多하야

中國共產黨의現況(續)

廣東은中國西南의重鎭이라그럼으로工業이比較的만히發達되고더라外勞働團體도多數히林立하야十八省의冠이되얏다廣州와佛山과香港附近에잇는各種勞働團體만槪算하야도數百에不下하고勞働者도또한三十萬名以上에達한다 그러나此種勞働團體는原來團結互助의精神이乏絕하야有產階級에對한鬪爭을힘잇게못하엿다今에其派別을論하면(一)工團總會派요(二)總工會派요(三)工會聯合會派요(四)機器總工會派라例컨대高麗共產黨의厄市派와上海派가잇는것과如하야主義는同一하나感情은和合치못하얏다그러하다가孫文氏의國民黨이改組以來로勞働運動에對하야積極的으로援助하매最近廣東政府勞働部長廖仲凱氏는孫文氏의內命을밧아渙散된勞工團體를糾合하야特히勞工統一運動을發起하얏다其方法으로는各種勞働者中每三百人에一代表를選擧하야代表大會를組織하고五月一日에代表大會를廣州에開함勞働者를四類에分하니(一)交通工人(二)工廠工人(三)手工業工人(四)業務工人이是라五月一日에代表一千一百人이會集하야勞働者의一團結을決議하고仍하야示威大運動을擧行하니參加한團體가三百以上이오勞働者及無產者가十萬餘人이오學生이約四五千名이엿다廖仲凱氏司會下에開會를宣하고孫氏의長時間大演說이잇섯고軍樂을先頭로하야示威行列을지어宣傳文을配付하면서口號를絕呼하얏는데其口號는如下하다 (一)職業은勞働團體가紹介하자 (二)一種產業의一個團體 (三)地方觀念을打破 (四)國民革命의參加等이다五月一日以後에廣東의勞働界는工界聯合會를組織하야 全省의工人聯合을圖하며勞働者로國民黨에加入한者임이全數의十分之四以上이오勞働者로將來國民黨에加入者가漸增할것을豫測한다한다

今後中國의國民黨과共產黨은異床同夢의觀이잇스니孫文氏의三民主義中民生主義는即『맑쓰』의均富主義와異名同義되는外닭이다孫文氏가陳獨秀氏派의共產黨과握手한後로南洋華僑等有產階級의反對를因하야三民主義는共產主義와有別함을力說하나그說明에依하면依然히共產主義의別號를民生主義라稱함에不過하다上海에서發行하는國民黨機關紙民國日報는共產主義紹介에全力을盡하는中이오孫文氏의革命方略은넘어共產革命으로도라가지오라다今後中國의舞臺는『맑쓰』作『레닌』作의脚本이登場케되리니우리는興味잇게此를觀覽할날이近하얏다(完)

總選擧開票結果

日本總選擧의開票結果로當選者는如左(續)
▲京都 荒野米太郎(實前) 森田茂(憲前) 片岡直溫(憲元) 田崎信藏(革新) 村上尚吉(憲新)
▲愛知 丹下茂十郎(本新) 服部英明(憲新) 小山松壽(憲前) 田中善立(憲前) 加藤鐐五郎(本新) 三輪市太郎(本前) 武富濟(憲新)
▲長野 松本忠雄(憲新) 野溝傳一郎(革前) 小川平吉(政前) 降旗元太郎(憲前) 三木淸(中新) 植原悅二郎(革前) 青柳榮司(中新) 樋口秀雄(憲前)
▲福島 八田宗吉(政前) 栗山博(憲前) 菅村太事(憲新) 八田宗吉(政前)
▲德島 秋田淸(革前)
▲栃木 高橋元四郎(憲新)
▲和歌山 岡崎邦輔(政前)
▲高知 下元鹿之助(憲新) 小野義一(中新)
▲茨城 山崎猛(政前)
▲香川 戶澤民十郎(憲新)
▲群馬 武藤金吉(政前) 飯塚春太郎(憲前)
▲福井 土生彰(憲新)
▲廣島 [illegible](憲新)
▲鹿兒島 [illegible]三四郎(本新)
▲岐阜 牧野良三(本前) 井上孝哉(中新)
▲奈良 大國[illegible]三郎(本新) [illegible]
▲埼玉 齋藤珪次(本新) 八木逸郎(本前) 丸山五郎(憲新) 谷澤平(憲前) 粕谷義三(政前) 松本眞平(政前) 山口政二(中新) 石井[illegible](政新) 鈴木[illegible] 小島[illegible]作(中新)
▲山口 長岡外史(中新) 兒玉右二(政元)
▲兵庫 砂田重政(前革) 森田金藏(實新) 折原己一郎(本新) 村上虎治(本新) 多木粂次郎(本前) 前田房之助(本新) 齋藤隆夫(憲元) 井上雅二(一新)
▲千葉 森[illegible](中新) 小寺謙吉(憲元) 濱口吉兵衛(本前) 關和知(憲前) 土屋淸三郎(政元)
▲大阪 吉津度(政新) 廣瀨德藏(憲新) 淸瀨一郎(革前) 山本芳治(當選) 前野芳藏(實新) 鶴井民次郎(本新) 板野友造(革新) 岩崎常次郎(政前)
▲石川 [illegible]喜幸(本新) 室木彌太郎(憲元) 青山憲三(本新)
▲富山 石原正太郎(本元) 上埜安太郎(本前)
▲秋田 柳田淸兵衛(本前) 井出繁三郎(本新)
▲宮城 笠原傳一(政前) 伊澤平左衛門(政前) 星藤平(本新)
▲山形 西方利馬(政新) 細谷三郎(政元) 西澤定吉(政前) 高橋熊次郎(政前)
▲青森 櫻田秀雄(本新) 野村治三郎(本前)
▲岡山 高草美代藏(革前) 小川鄉太郎(中元) 星島二郎(革前) 小橋藻三衛(革前) 淸水長鄉(本新)
▲島根 原夫次郎(本前) 木村小左衛門(憲新) 古川淸(政元) 佐藤球三郎(憲新)
▲東京府 林田龜太郎(革前) 本田義成(中新) 中島守利(政前) 前田米藏(政前) 淺賀長兵衛(憲前)
▲福岡 山崎達之助(本新) 青柳郁次郎(政前) 赤間嘉之吉(政元)
[illegible]次郎(革新) 山內確三(政元)
▲佐賀 田口文次(本新) 西英太郎(憲元) 中野實(憲新) 加藤十四郎(憲新)
▲愛媛 成田榮信(本前) 岡田溫(民新) 小野寅吉(本新)
▲鳥取 三好榮次郎(中新) 谷口源十郎(憲新) 三好榮太郎(中新)
▲靜岡 岩崎勳(朝鮮政新) 平野光雄(革前) 倉元要一(中新) 山本厚治(憲新) 鈴木富士彌(憲前) 松浦五兵衛(本前) 三橋四郎次(憲新)
▲新潟 山本悌二郎(政元) 石黑大次郎(憲新)
▲岩手 廣瀨爲久(政前) 柵瀨軍之佑(憲元)
▲三重 安保庸三(本新) 井口延次郎(本新) 三原敬教(憲新) 川崎克(憲前朝鮮) 尾崎行雄(革前)
▲北海道 一柳仲次郎(憲前) 阪東幸太郎(憲新) 佐々木平次郎(中前) 山本厚三(憲前)
▲宮城 荒井泰治(實新) 長峰與一(本前) 吉松忠放(本新) 永井作次(本前) 陳 軍吉(本前)

米機占守島에

十四日到着될듯

(國風電) 十日『아-주』에到着한米國의三機가占守島에到着할時는十四日일것이며此地方의天候變化가無常하야低氣壓의襲來가殆히連日繼續하는故로或은豫定보다延着될는지도不知한다더라

鹽需要額과種類

一個年四億斤에 天日鹽이七割强

全朝鮮의鹽需要高는四億斤인데沈菜用이約三割의一億二千萬斤이오士醬、淸醬의釀造用을合하야約二割의二億斤이라其外麵類製造用漁獲物鹽藏用과十幾種으로使用되는데第一位는沈菜用이라此를朝鮮의全人口에平均하면每一人一年二十三斤이되야日本及外國에서도大體二十斤內外에比하야朝鮮이多하다鹽의種類는大體天日鹽、煎熬鹽、再製鹽、食卓鹽의四種인데朝鮮에서는天日鹽이最多하야全需要量四億斤의七割强이니此天日鹽은目下總督府製品이約一億斤과其餘二億斤假量은中國輸入鹽으로充當하고其次가煎熬鹽이니一割强이오再製鹽은此보다稍少하야約一割이되며食卓鹽은使用의範圍가狹小함으로全體가千萬斤假量에不過한지라二十餘年前에는殆히煎熬鹽뿐이더니中國에서低廉한天日鹽이入來하야漸々勢力을得하며忽然需要의六七割을占하게되얏고一方으로再製鹽도始作되야輸入된廉價의中國鹽을原料로하고少許加工하야上流用에供給하게되얏슴으로煎熬鹽은益々不振하얏는데總督府에서는京畿道朱安에八十八町步、平安南道廣梁灣에七百七十四町步의天日製鹽田을擴張하야自作自給의道를樹한바此는十數年前의事이라漸々增築하야今에는三百四十七町步를增加하얏고又大正九年度부터繼續事業으로完成한것六百六十六町步本年末에竣功하는것六百町步計千二百六十六町步인데既成鹽田과合하면二千四百七十五町步의鹽田이된지라當初는鹽出을四千町步로하야外國의輸入을受치안이計劃이엿스나昨年의關東大地震의影響으로一時中止하게되야擴張事業을獨立하게되지못한것이라더라

一期市街地稅

徵收狀況

大正十三年度第一期分의全朝鮮市街地稅徵收狀況을最近總督府調查에依한즉調定額二十六萬四千四百十五圓에收入額이十四萬四千四百三十五圓末收入額이十一萬九千九百八十圓이니調定額에對한收入額의收入步合이五割四分六厘라昨年의五割一分六厘에比하면成績이良好하다는데今에各道別의收入步合을示하면如左하다더라

京畿	四四五厘	忠北	八三二厘
忠南	四四〇	全北	二九六
全南	七九三	慶北	二九四
慶南	八六一	黃海	七〇七
平南	七二八	平北	六〇〇
江原	無	咸南	無
咸北	一,〇〇〇		

農務會議內容

近藤農務課長談

今回道農務課長會合에서各道의狀況을見하건대其重要視하는것은모다產米이니此는即拓殖計劃及品種改良에關한것이다故로大正十一年以來種子更新計劃을樹立하야採種畓을經營하야온바모다成績이良好하다此外伴하야籾의乾燥調製의必要가有함으로昨年부터產米改良의實行部落을一道數個所式指定하고實行督勵員을設하야郡面의技術員과協力하며籾調製를極力勸誘한結果米의生產이比較的增多하는同時에成績이甚好하야販賣上에도相當한好價格을取하게되얏고且昨年에同樣으로立米調製部落을指定하야配付又는公同購入으로叺摺器를備置하고從來立米調製의習慣이薄弱하든農民에게此를獎勵한結果此亦是成績이良好하며肥料問題에關하야는米及其他生產의漸加함을따러地力이消耗됨으로第一自給肥料를獎勵함이肝要하니即綠肥、靑刈大豆、紫雲英을普及하는同時에一方으로人糞을利用케하며또한金肥도次々利用을增加케할지오養蠶은昨年에一躍二十萬을超越한바今年에도더욱一割五步內外가增加될模樣인바또한此外伴하야桑의栽培도益々獎勵할것이며畜產에關하야昨年에國費로種牡牛의部落을指定하야此의保護及種付를實行하야成績이頗好하며本年에는豚鷄의良種도益々獎勵하야普及하는同時에販路를擴張하고또한朝鮮內加工業者에게供給할計劃으로補助를交付하야實行한다는道도有하다고云々

京鐵局荷動

五月上旬狀況

五月上旬의京鐵局咸鏡線北部를除한朝鮮線荷動은稍히天候不良의關係도有하얏스나依然히不振의狀況으로左와如히營業品은모다前年에比하야顯著히減少하얏는데荷動의主要한것은『세멘트』及豆粕類는大體順況이엿스나穀類는目前混乘함으로出廻가殆無하고爾餘의各品도同一의狀態이엿스며滿洲線及鐵滿各線間의輸移出入도亦同一한狀態로推移하야結局不振裡에越旬하얏더라

朝鮮線發送噸數

	本年度	前年度	比較增減(▲)
營業品	六〇八七	[illegible]	▲[illegible]
社用品	一〇五六二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七二六九	一〇三九四	▲三三二五

府協議茶會話

來三十一日에擧行할御成婚奉祝宴에對하야京城府廳에서도臨時豫算을支出할必要가有함으로今十四日午後三時에府協議會茶話會를開催하고協議한다더라

辭令

總督府裁判所通譯官 林久次郎
典獄補 小山鉦次
同 總督府看守
大正十三年度施行朝鮮總督府看守長特別任用考試臨時委員을命함
(十二月附)

人事消息

▲中山勝之助氏(總督府判事)는十一日附로東京市에出張被命
▲藤缸次郎氏(總督府判事)同上
▲佐藤春樹氏(總督府檢事)同上
▲蒲原久四郎氏(總督府遞信局長)는十二日附로仁川에出張被命
▲奧田定一郎氏(京城高等工業學校敎授)는十二日附로中國에出張被命

民聲

▲全北長水郡에서樵夫가쥬린범(虎)을打殺하얏는데樵夫의힘이쎄여서그런것이안이라범이飢渴이甚하야氣力을쓰지못하기때문이라고한다▲何必범만이러하랴배부른階級、배고픈民族이배고픈階級、배부른民族을죄주던범잡듯이하는일이이世上에만흐니▲日本某新聞에『布哇에잇는米國人間에는布哇兒童에게强制的으로布哇語를가르치자는運動이起하얏는데그理由는如斯히하야自己種族에게對한自尊心을養하는것은彼等을發覆시키기爲함이라는데 朝鮮에서는朝鮮語를撲滅시킨다』고記載되얏다 齋藤文化總督健在否?▲昌寧郡南旨에서는다리다섯가진송아지(犢)를나앗다고 造化翁도人間의窮乏한것을알고 소고기(牛肉)를좀豐足히먹이자는酬酢인가▲大邱基督敎靑年會主催運動會에조國압패노엿든自働車가제절로發動되야人力車를破損하고大暴行을하얏다! 인제야정말自働하는自働車를구경하얏다

社告

昨十二日發行本報第一千三百四十一號는當局의忌諱에觸하야發賣禁止되얏기로更히號外를發行하얏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告白

商況

▲朝銀帳尻 十三日
銀行券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高 [illegible]
保證準備高 [illegible]

▲日銀帳尻 十二日
兌換券發行高 一、一六七、五四五
正貨準備高 一、〇六〇、二二五
貸出高 五一三、〇一九
(單位千圓)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張) 張最根
仁川府海岸町三ノ一
電話長二七二番
電略『チ』又는『장』

日本金利 (五月十三日)

	東京	大阪
商業手形割引	〇二五	〇二六
翌日拂	〇一八	〇二九
無條件	〇一九	—
月越	〇二五	〇二五

海外經濟電報 十三日着電

倫敦銀塊 三十三片八分의五
米棉 四十錢低
英米爲替 四弗三十六仙二分의一 (一仙低)
스의已 九十五弗二分의一 (一弗二分一低)
아나콘다 三十二弗四分의一 (四分一低)

仁 川 期 米 意 · 林小十千藤右衛門

釜山穀物市場前場

穀良 三一、三〇 神力 三一、一〇
大豆 一七、三〇 五月中 —
五月末 — 六月中 —
六月末 三一、三五
出來高 八千石

大邱穀物市場前場

五月末 — 六月中 三〇、五五
六月末 三〇、七〇
出來高 一萬九千五百石

群山穀物市場前場

穀良 三一、三〇 神力 三一、〇〇
五月中 三〇、五五 五月末 三〇、九五
六月中 三一、三〇 六月末 三一、三六
出來高 三萬二千八百石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仁川府海岸町三丁目
カネマス 盈 仲買店
電話長三三一·七六三番
電略『マス』又는『익』

大阪綿絲 (十三日前場)

	初付	大止
五月限	三一九、九〇	三二〇、四〇
六月限	三一五、二〇	三一五、二〇
七月限	三一二、六〇	三一三、一〇
八月限	三〇八、七〇	三〇九、八〇
九月限	三〇六、六〇	三〇七、八〇
十月限	三〇三、〇〇	三〇四、二〇
十一月限	三〇一、三〇	三〇一、七〇

京城綿絲布 (十三日)

(廣木)

三A升足入一捆		[illegible]
九龍	同	[illegible]
大A	同	[illegible]
三星	同	[illegible]
金剛山	同	[illegible]
三角山	同	[illegible]
金閣	同	[illegible]
白頭山	同	[illegible]
還管	同	[illegible]
黃寶	同	[illegible]

大阪期米 十三日

	前場	後場
一節	三四、八四	三五、一八
二節	三四、八一	三五、二二
三節	三四、八四	三五、三九
四節	三四、八八	三五、四一
五節	三四、八九	三五、五五
六節	三四、九九	三五、六六
七節	三五、〇〇	
八節	三五、〇六	
九節	三五、〇八	
十節	三五、一三	

大阪株式 十三日前場

大株	九五、〇〇	同新	九五、〇〇
同新	七九、八〇		七九、八〇
紡績	一七二、五〇		一七三、〇〇
同新	七三、五〇		七三、八〇
郵船	二四、八〇		二四、七〇
同新	—		八、四〇
商船	一一四、〇〇		一一三、九〇
同新	—		—
砂糖	一一三、九〇		一一四、一〇
東紡	[illegible]		[illegible]

東京株式 十三日前場

東株	一二三、〇〇	同新	一三三、一〇
鮮銀	三六、五〇	同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毛	—	朝紡	—
富士紡	[illegible]	同石	[illegible]
油取	[illegible]		

東京期米 十三日

	前場	後場
第一節	三七、五九	—
第二節	三七、六〇	—
第三節	三七、二五	—

各地期米 十三日

	前場	後場
第一節	三七、五九	—
第二節	三七、六〇	—
第三節	三七、二五	—
第四節	三七、三六	—
第五節	三七、五六	—
神戶寄	三四、六六	—
下關同	三三、九一	—
桑名同	三四、三一	—
止	三五、一九	—
同	三四、三四	—

仁川期米 五月十三日

前場先低後高

昨後場은阪地情報의遲着으로三十一圓八十錢이節止値보다一丁高로寄付한後阪地初付三十五圓二十二錢으로三節二十七錢으로二節十九錢인反落하고三節五十錢이로其節二十八錢이又一段落하는中阪地三節〇六錢이되고四五節을直하야三十五錢의低値를生하고阪地五節二十六錢이反落을受하고大節四十六錢에外지跳返하엿다가結局阪地十九錢의止値를伴하고三十九錢이歡迎되야大場을止하엿는바今前場에至하야寄付三十四圓八十四錢으로보다三十六丁의反落을生하야大寄付하얏다
▲第一節 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三十圓三十錢先限은三十一圓으로昨止値보다三十九丁低히初付하다
▲第二節 阪地二節八十一錢으로三節八十四錢인小反의報를接하고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三十錢一口로先限은十六錢으로反騰하다
▲第三節 當限은二十九圓八十錢으로中限은不成이며先限은十五錢으로小落하다
▲第四節 阪地四節八十九錢으로五節九十九錢인反高를接하고當限은不成이나中限은十錢으로反落하되先限은二十六錢으로依然反騰하다
▲第五節 阪地六節三十五圓인又復二丁反高와共히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三十五錢으로跳返하다
▲第六節 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三十錢으로小落하다
▲第七節 阪地八節三十五圓〇六錢인反高를受하고當中兩限은不成이나先限은三十七錢으로返戾하야終하다
▲第八節 阪地八節五十四錢의報가有하엿스나九節下落인四十四錢報로因하야當限은三十圓四十錢에中限은不成이오先限은六十五錢으로弄落하야終하다
▲第九節 阪地止値又九節同樣인四十四錢報를接하고當中兩限은不成이오先限은六十錢으로又復反落되야終하다
▲第十節 當中兩限은不成이오先限은三十一圓六十錢으로法局場을止하니高低의差가二十三丁이러라

一節	三十一圓	
二節	三十一圓十八錢	
三節	三十一圓二十五錢	
四節	三十一圓二十六錢	
五節	三十一圓三十錢	
六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九節	[illegible]	
十節	[illegible]	
初付	三十一圓四十九錢	
止値	三十一圓八十九錢	
高値	三十一圓四十九錢	
安値	三十一圓四十九錢	
一節	三十一圓五十錢	
二節	三十一圓七十錢	
三節	三十一圓六十九錢	
四節	三十一圓六十八錢	
五節	三十一圓七十九錢	
七節	三十一圓八十九錢	
取組高		

公定價格

止値	三十一圓
高價	三十一圓六十錢
安價	三十一圓八十三錢
	三十一圓六十錢

賣買石數 一五五、一〇〇
中限 二三、九〇〇
先限 九、六〇〇
取組高 九六〇、四〇〇

仁川米豆取引仲買人
仁川府海岸町三丁目
(マ) 廣澤正次郎
電話 長七〇番 一六五番 一六〇番
仁川宮町廣澤米穀部 長電話三〇七番

仁川米豆取引所 仲買人 (丸井) 仲買店

仁川在米減少

仁川穀物協會調査에依한現內六行의本月十日付現在穀物在庫數는前週에比하면一萬一千六百五十石七斗를減하엿고其他在庫品은別하면左記와如하더라
▲玄米四斗入一八四、五五六叺▲白米五斗入一八、一二九叺▲大豆四斗入六二、六一五叺五斗入一、五三一叺五斗入八五叺▲小豆四斗入二〇八叺▲小麥四斗入六〇叺▲正租叺入二、五一三叺俵入二、二〇六叺七斗▲粉米四斗入二、二〇六叺▲栗七斗入一、〇〇〇叺▲正租叺入一〇〇俵▲麥五斗入一四〇袋▲黍七斗入一〇〇袋▲糯米四斗入二四四叺六斗入二五叺五斗入二四〇袋▲麥五斗入三四〇袋(運搬物)七〇袋七斗入

京取市場買賣價 (十三日)

株名	前場當限	前場先限	後場當限	後場先限
京取	…	…	…	…
仁取	九三〇	…	九三〇	…
同新	三三〇〇	…	三二〇〇	…
鮮銀	七〇五〇	…	七〇五〇	…
同新	一六三〇	…	一六三〇	…
殖鮮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一一〇〇	…	一一〇〇	…
商銀	四〇五〇	…	四〇五〇	…
商銀	…	…	…	…
同新	[illegible]	…	[illegible]	…
漢銀	三六〇〇	…	三六〇〇	…
同新	六五〇	…	六五〇	…
韓銀	…	…	…	…
東拓	三五〇	…	三五〇	…

株名	前場當限	前場先限	後場當限	後場先限
同新	一三〇〇	…	一三〇〇	…
鮮土	三〇〇	…	三〇〇	…
朝紡	…	…	…	…
滿毛	一五〇	…	一五〇	…
京電	…	…	…	…
同新	…	…	…	…
電興	一五〇	…	一五〇	…
金產	…	…	…	…
朝郵	三三〇〇	…	三三〇〇	…
朝鐵	…	…	…	…
京南	七六〇	…	七六〇	…
金剛	一五三〇	…	一五三〇	…
滿鐵	二〇八五〇	…	二〇八五〇	…
同新	三三三〇	…	三三三〇	…
東亞	一一〇〇	…	一一〇〇	…
同新	三一〇	…	三一〇	…

短期取引

株名	前場當限	前場先限	後場當限	後場先限
湖信	五九〇	…	五九〇	…
東信	五九〇	…	五九〇	…
朝信	七〇〇	…	七〇〇	…
湖取	三三〇〇	…	三三〇〇	…
本信	三三〇	…	三三〇	…
大取	五九〇	…	五九〇	…
入新	…	…	…	…
株名	寄	止	高	安
東取	二八七〇	二八六〇	二八五〇	
大新	七六三〇	七六六〇		
仁取	…	九三〇〇	…	
同新	三三〇〇	…	…	
朝紡	…	…	…	
東新	…	一六〇〇	…	
滿取	…	…	…	
安取	…	…	…	

全北輕鐵에二人慘死

滿員以上의乘客을태워서 차실이의外지색하게닷다가 다섯사람이떠러저서이인참사

지난십일일에 전주군(全州郡)뎐진지(鎭津池)가에서개최된자뎐거경주회는극히 성황을이루엇다 함은이때보도한바어니와그장소는뎐부경편텰도(全北輕便鐵道)뎐진역(鎭津驛)가이라 인산인해를 이루도착하야 혼잡한와둠에오엇든판주이어섯양에헤여지는때리리(裏里)로부터오는긔차가뎐진역에백지데하고무리히사람을만히태워차실밧게지비들어시가득히서서진행하는중오후여섯시이십분경에이동면(伊東面)검암리(劍岩里)근처에서 실외에잇는사람중 다섯사람이나뎌러저서 세사람은 다행히무사하얏스나 전주대화뎡(大和町) 고무상은뎐진(溫泉池)의집에고용하는 전주군상관면(上關面) 출생 김홍진(金洪鎭一七)은통이 제도안에 들어면부(面部)갈니여죽사하고진안군(鎭安郡)마령면(馬靈面)동촌리(東村里)지를 상박용운(朴用云四五)도중사하야 생명이실낫가티남어잇는것을고간차한간을빌어서실코 전주역으로 들어왓는데마츰내사망하얏다더라 (전주)

府內五十九個의 保險會社에남긴돈

昨年中에九十四萬四千餘圓 동경은진재에손해를보앗스나 경성에서는남은것이무척만타

경성부(京城府)내에잇는오십구개와보험회사(保險會社)의작년말현재의상황에대한경성부권업계(勸業係)의됴사한바에의하면조선에잇는각종보험회사의본뎜(本店)과지뎜(支店)을합하야 권긔와가티 오십구개소인데그종류는생명보험(生命保險)이스물다섯이오징병보험(徵兵保險)이하나이오상해보험(傷害保險)이하나이오 운송보험(運送保險)이 일곱이오 화재보험(火災保險)이 스물이오 해상보험(海上保險)이 다섯인데 이오십구개회사의 작년말현재의 보험계약(保險契約)이체결되야

잇는수효

는조선인과일본인과기타외국인을 합하야건수(件數)로사만오천륙십팔건이오이에대한금액총수는「일억(億)륙백삼십사만칠천삼백이십삼원」의 거액인데 그중에 작년중에 려면쥬에회사에서 바더들인보험료(保險料)총액은「일백오십만구천일백오십원」이오 보험에든사람에게지불한보험금총액이「오십오만구천삼백팔십이원」과 또보험료이외에

다른계약

(契約)에의하야 지불한것이「오천일백구십륙원」합으로이지불한 두가지의합계「오십륙만사천오백칠십팔원」을권긔회사에서바더들인보험료총액「일백오십만구천일백오십원」에서 제하고보면남어지가「구십사만사천오백칠십이원」이됨으로 이것을권긔여러회사의순리익이라고는볼수업겟지마는 이「백만원」에 갓가운돈이작년중에보험회사의수지(收支)상으로보아 리익된뎜이라고 하겟더라

「마」少佐는歸國

비행긔를곳친뒤에 다시뎌날터이라고

미국(米國)세계일주비행대의사령(司令)「말진」소좌는하자에「아라스카」에서추락한후일시본국으로도라가서 비행긔를곳쳐가지고 다시뎌날터이라더라(화성돈ㄴ던보)

「朝鮮之光」續刊

지나간이십일에발행

장도빈(張道斌)씨의경영으로창간된주간잡지조선지광(朝鮮之光)은 데사호까지 발행되다가 당국긔휘에촉하야 발매금지를당한후 계속간행치못하더니 근자김동혁(金東赫)씨의주선으로 그잡지가부활하게되야 지나간십일에 뎨오호를속간하얏다더라

閔氏監視說流行

당시청부예자금을공급 합외하는의심이잇서서

죽동궁(竹洞宮)민덕식(閔悳植)씨는상해(上海)에와서처음에는불국조계외국인 려관에 류숙하다가수일후에 불조계 고발로(古拔路)칠호양옥(七號洋屋)을 세내여거주하는중인데 그부인 리씨(李氏)가 항상신병으로 신음하던바 상해에 온이후에 병세가더욱 심하야방금 치료하기에 아모것도 경영할여가가업시 지내는중인데 뎐하는말에는그의부친고민영익(閔泳翊)씨가 …을상해독일은행에예금하야두고 유언하기를 자긔아들 민정식씨가 삼십세가넘거던 그금액을지불하야달나하얏다하나 그것은 사실이업는허언이라하며 근일에대판조일신문(大阪朝日)에의하면 조선총독부 에서민씨가협시정부와련락하야자금을공급할까하야 수명의뎡탐을 파송하얏다고하얏는데 그러한말이상해에서도성행하며방금뎡탐이와서감시중인듯하다고하더라(상해)

衡平社執行委員會

금월십팔일통회관에서

형평사(衡平社)혁신동맹회(革新同盟會) 에서는숙데의문뎨를토의하기위하야 금월십팔일오전 열시부터그혁신동맹회관안에서중앙집행위원회(中央執行委員會)를열터인데집행위원은 반드시출석하기를바란다하며 토의할문데는아래와갓다더라

一、特派委員報告에依하야決定의件

二、反動團體에對한處置의件

三、衡平社事業의件

松峴山에兒屍

라살은안이라고

지나간십이일오전두시경에 인천부(仁川府)송현리(松峴里) 배수지(配水池)산우에서데ㅅ개가잇는것을 소관우각리(牛角里)파출소 경관이발견하고 검시한결과 나이약네살된계집아히로판명되엿고라살은안이오 혹은집에서 죽은것을밀장한것인듯하다더라(인천)

迎日沿海暴風의被害

漁船二隻轉覆、漁夫一名溺死 그외의행위불명이삼명

지나간칠일오전열시부터경북(慶北) 영일군(迎日郡)해안일대에는 돌연히동북편으로부터폭풍이불어오며 해상은일시에 항냥하게되얏스나이때는마츰어긔(漁期)가안임으로 어선(漁船)들은모다경남 연안으로갓슴을인하야해상의손해는 극히경미(輕微)한데영일만외(灣外) 청하면(淸河面)에는마츰어업에 종사하던 조선사람의슈조망(手助網)어선두척이뎐복되얏는데 그배가뎐복할을따라 동군곡강면(曲江面) 칠포리(七浦里) 구신북번디 청긔봉(鄭基鳳四〇)은빠져죽고 동군청하면(淸河面) 이가리(二加里) 사십칠번디김화텰(金花哲三八) 과그곳백삼십일번디김주석(金周石二九)과영덕군 (盈德郡)림여일(林余一四六)등 세명은 이여외지행위불명이라더라(포항)

戀愛씃헤大活劇

自轉車에올는靑春男女

전속력을다하야다라나는뒤에는 자뎐거를탄경관일대가헐네벌떡

지나간칠일경북봉화군(奉化郡)읍내내성교(乃城橋)근처에서는활동사진과가튼대활극이잇섯다는데이제그내용을들으면동도영주군(榮州郡)읍내에사는윤봉안(尹奉安二〇)이라는남자는얼마전부터봉화군(奉化郡)재산면(才山面)현동리(縣洞里)박화준(朴化俊)의딸영이(英伊一六)이라는이팔의쏫다운처녀와 정을통하고지내오든중 부모의구속을

버서나서

영영자유의생활을하여보고자그녀자를말(馬)에태여가지고 어데로향하여가다가 녀자의친부박화준은 계발각되여봉화경찰서에설유원(說諭願)을데출하엿슴으로 그경찰서에서는 남녀두사람을 인치하야 엄중설유한후그녀자는 박화준에게로 인도하야자긔집으로 돌아가고자 전긔내성교근처에 이르러지음에 돌연히자뎐차를가진여섯명의청년이달녀와서

윤봉안은

박화준을쎄여안아서 움지기도못하게한 다음에다른청년다섯명은 그녀자를 자뎐거에올녀안치가지고 전속력을 다하야다라나는동시에 윤봉안도순식간에 자뎐거를타고 다라남으로박화준은 할수업시 다시경찰서로뛰[illegible]라

李壽澤은二年半을言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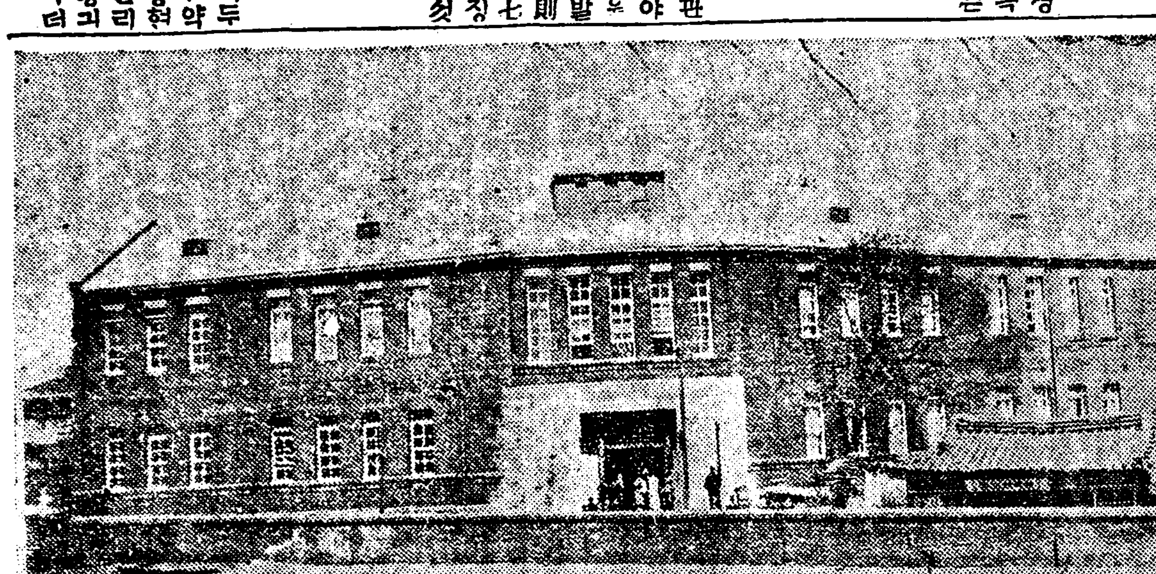
검사의구형대로

밀양폭탄사건(密陽爆彈事件)의관계자 리수택(李壽澤)에게 대하야 작일오전열시경에 경성디방법원 형사부 영도(永島)재판장은 폭발물취톄규측위반(爆發物取締規則違反)과제령뎨칠호위반(制令第七號違反)으로검사의 구형과가티징역이년륙개월의 판결언도가 잇섯다더라

馬賊團移動

함북대안으로

모처에도착한정보에의하면마적두목득승(得勝)이가인솔한마적단약오십명은 지나간십일승에 화룡현(和龍縣)삼도구(三道溝) 청산리산중에서함북삼장(三長)대안홍긔강(紅旗江)방면으로이동하얏다더라



교장최규동(崔奎東)씨와여러 선생의헌신임업는 노력으로시내슈송동(壽松洞)에 옷독이러선사립 中東學校의 새로건축한교실 이천명이나넘어되는학생이날마다「아!참우리집조타시원하다」할것이다 그러나여러선생은이것으로 만족치안코오즉 가장적은것으로 덕이는줄을우리가안다 이것이 우리교육계에가장귀한보배의씨앗을도닷는다 더묘하고묘한학해의삼각주(三角洲)! 그안에풀이나고나무가무성하리니 나는새로깃드리게하는구나

安州强盜逮捕

작나간륙혈포로위협한자

안주군(安州郡)동면(東面)금석리(錦西里)배웅직(白應稷)의집에는 륙혈이일 어느날밤에강도 한놈이와서 륙혈포로취인을 의협하며 돈을내이라고 하다가돈이업슴으로 주일로긔약하고 돌아갓다가 지난일일밤에 또다시와서 돈을내어라고거짓륙혈포 로어르는다가 갓다는데피해자는 곳소관주재소에 고발하얏슴으로 소관서에서는 데포에노력하더니지난팔일에혐의자를데포하야 목하엄중히취조 한다더라 (안주)

金鍾範氏의動靜

그간상남에가잇든중 불원가입경할터이오

조선로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집행위원김종범(金鍾範)씨는총동맹립시대회사건으로 경찰당국에 거그동안매우차는모양이더니 씨는그간상남방면에원이잇서서가잇는중이라하며 씨는 집행위원회에 참석도안이하얏섯는데 상무집행위원에피선되엿는바 상평이 집무는할수가업슴으로 상무의 책임을질수업다고사직서를데출하얏다하며 유무도거의뭇이낫슴으로 불원간입경하겟다더라

성인벽란도(碧瀾渡)에서황해도청화뎐(和田)기수가해져죽은일은그예본보에 이미보도하엿거니와 지난륙일에는 돌연히연백경찰서(延白警察署) 경부가경관수인을인솔하고 강을건너와서 개성(開城)서면(西面)경관주재소의응원을바더가지고 전긔벽란도 리춘성(李春成) 씨의집을수색하야목도리수건을장을가려며 조하야보더니 전긔리춘성의뎌은딸녹금(綠錦一〇)을잡아가지고 연백군해월면 경찰주재소외지가서 하로밤을 가두엇다가그 뎐진란만한 어린이다려「네아비가화뎐을죽이엇지?」엄문하다가종시안이라함으로방송하얏는데전긔벽란도동중인사들은 저 리춘성가려에매한사람을 음해하려고 경찰에게 허무한일을 밀고한자가동중에잇다하야 여론을일으키며 조사한슴과 조봉춘(趙鳳俊)이란자는 그음해하던 시말을낫낫치 자백함을받아니라주공삼(朱公三)파공모하얏다고하며

주공삼은

원래경찰의밀뎡인세력을미더 조봉춘에게만 씨운나고일동은분개한다더라(개성)

지하야 이곳에왓느냐하며 복쇼할머니하고구경나왓다가일허버리엇다고활문이라그동리사람들이동소문경관파출소에다리여다가쥬고찻는사람이잇거던주라하엿다더라

女子二人을誘引하야

中國長春에賣淫女로팔은자

일판구명이전부잡혓다

대구(大邱)에서는별별협잡군이생기여서 대구경찰서에서교묘하게범인을데포하엿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대구부명치뎡(明治町)박조순(朴澄順二六)수뎡(竪町)김명원(金明源四六)파동뎡 리선오(李善五三四)와덕산뎡(德山町)오긔명(吳基明二五)파동뎡 김래봉(金萊奉三二)파명치뎡 정원상(鄭源相四二)파궁뎡김봉순(金奉淳四〇)남산뎡(南山町)김달환(金達煥三二)동뎡정윤긔(鄭允起三二)의구명등을작년륙월부터공모하야대구시내에서 평북에출생한김봉옥(金鳳玉二三)과 경남에출생한최달리(崔達伊二七)라하는두사람의미인을유인하야 긔괴한말과 유혹한구변으로 경성 평양(平壤)등디에 큰가산자에게 구혼하야 안락한가뎡을이루어준다하고교활한수단으로 중국장춘(長春)등디에매음녀으로 팔어먹은사실이 발각되야 목하대구경찰서형사의손에데포되야유이죄로취됴를밧는중이라더라(대구)

獨立團보다 怪疾이더겁정

인천상해간에항해개시와 인천경찰서에새려청거리

안창동안문데이든인천상해간(仁川上海間) 항해는오는륙월륙일에 부산(釜山)을떠나첫항해를할터인데이에대하야 인천에서는 뎐염병예방과 독립단의출몰할것에 관하야 관계관청과 의론이분분한터인데가등(加藤)인천경찰서장에말을들으면 중국은원악이 뎐염병이만흠으로 각금인천에 들어오는긔선에서 병자를발견하는터인데 이제직통이되면 검역소(檢疫所)에서는만흔힘을써야 될것이오 또독립당의 출몰에대하야는 그다지문데될것이 안임으로무슨 특별한시설은업겟스나 하여간인천 중국간에는매년근사만명의래왕객이잇는터이니까각별한주의를아니치안이하면 안이되겟다고말하더라(인천)

密偵의害毒

밀고를드른경관의망동 음해자는집이나서자빠

작년겨울에 경긔도와 황해도의관자쇠히는 알수업스나 그뎔로인연

殘忍齷齪한毒婦

제가나혼딸을물에너허죽여

본부소생이잇슴으로인연하야 본부와다시살게될셔렵려하고

충남(忠南)서천군(舒川郡)시초면(時草面)신곡리(新谷里) 구슈진(具守眞)의쳐최성녀(崔姓女二四)는 그본부 안인호(安仁鎬)와살며에여섯살 된딸까지 잇는터에아모연고업시 그본부를 배척하고작년삼월경 부터권긔 구수진과인연을매저살어오든바 무슨 리유인지권긔본부의 소생뇌곱살된 딸을지나간사월오후두시경에 시초면 신흥리(新興里)도마천(都馬川)에밀어너허 죽인것이서천 경찰서에발각되야곳범인을 검속하고 검사가실디임검하야 해부까지하엿 다는데그죽인원인은 아즉취됴중 임으로자세히는 알수업스나 그뎔로인연하야다시본부와 가티살게 될셔렵더하고그외가리악한행동을한듯하다더라(서천)

月尾島에서

자동차가사람을치여

지난십이일 오후다섯시경에 인천(仁川)월미도(月尾島)방축입구를 지내자동차부자동차가진행중인천부(仁川府)룡강뎡(龍岡町)이십팔번디에사는거리장사최수룡(崔壽龍一五)이라는 아희가그동무와장난하다가 그만치여서 머리에중상을당하엿는데 운뎐슈 에게는과실이업다는자동차에 탓는사람에 중상이잇슴으로 부상자만학뎐(鶴田)병원에입원치료중이라더라(인천)

自稱警官의强盜强姦

작일공판뎡에는방청을금지

경긔도리천군(利川郡)부발면(夫鉢面)가좌리(加佐里)일백칠십이번디조긔성(趙基成三一)은강도강간(强盜强姦)죄로 그동안 경성디방법원민사부에서취됴를마치고즉시동원형사부공판에부쳐서 작일오전열한시경에 대텽오벌정안에서 영도(永島)재판장의 담임으로공판이열니엇는데이제그내용을들으면피고는지난삼월십일에동리어느산골길을지나가든중에마츰김놀일로산가운데서방황하든동군대월면(大月面)송라리(松羅里)고재명(高在明四四)이라는녀자를보고 [illegible]모에취하야잠시동안따라가다가사람의그흔산골작이에일으자고강제로간음을하려자의극력반항함으로을달하지못하고 나서을생각하야 자긔는月面)에잇는경관으사할필요가 잇다말하가지고잇든 돈삼원을이려입엇든옷을 권부까지하고 도주하엿든 … 공판뎡에는 방청을 … 라

千金차저가오

동소문안파출소에잇소

재작십이일 오후여섯시경 부터동열시경까지시내박석고개넘어숭삼동(崇三洞)초입길가빈자뎍부치는집근처에는집일흔계집아희하나가 갈파·질파·하며녀자만보면따러가라고 에울쓰는데 얼굴은동글갸름하고 눈근처가우굿하고 옷은낡빗빗랑에붉근소매단저고리와붉은치마를닙고붉은고무신을신엇스며 성은모른다하나 일흠은천금 이라고하다가 다시안이라고도 하며나희는여섯살이오하고어되잇느냐하면다만복순네하고가리잇다하고엇

自省團의不自省

일음과취지는번들러하나 하는일은종시이싸위짓뿐

전남(全南)광주군(光州郡)에는유독히「모루히네」환자(患者)가만흔외관계로 전남경찰부(全南警察部)에서 주선으로엽마전부터 광주무등산하에잇는 증심사(證心寺)에「모루히네」환자수양소를설립하고극력치료하야줌으로다대한효력을보아수십명환자를모도완치케하야 가지고그들로하야금자성단(自省團)이라는회를

조직하게

하얏는데소위간부의책임을가진자들은요사이허랑방탕을개시하야음으로조흔성적을이두어오든터인데그단의간부인한사람오연호(吳然浩)란자는일긔가 덧수하야집으로 근본주독의 청신이재발하야견듸지못하얏섯든지광쥬군(光州郡)소뎡면(松汀面)에와서이곳 저곳떠도라단니다가 맛츰내전북(全北)전주(全州)방면으로부터 송뎡리에와서잡복하야잇든모히」주독자 리철문(李哲文)의 잇는곳을

탐지하야

가지고오연호는리철문을보고나는광주에자성단의간부중한사람으로「모히」중독자들을모도데려가라고왓스니종용한곳으로싸라오라고하야가지고그곳에사는김삼재(金三才)란자의 집에 차저가서 잠긴문을 임의로 열고 그집방안으로들어가서 오연호는리철문을의협하야「모히」약을 쌔아서서로맛바쉬쥐고 더욱이모히를쌔아서가지고

주저하고

잇든차에마츰나그이웃집에 잇든김길수(金吉洙)가 그긔미를 알고 현장에 쫏차들어가서 전긔두사람들을 다주재소로몰아너켓다고하는동시에일방으로는 오연호를보고하는말이 너는소위 자성단원의한사람으로 이와가튼부당한행위를하니가절머로용서치못하겟다고 선언하면서 당장「싸귀」를부치며 크게힐책함으로사방에구경군들이구름가티

밀녀들어

한참동안떠들썩할극음이루엇는데 리철문은 요란한틈을타서 종적을감추엇슴으로 일반은오연호를붓잡고여러가지로설유를하면서 가던사람은 발을따리며「모히약」두포(二包)를쌔아서가면서 소동을이루엇는데 소할송뎡

주재소원

이현장에출동하야오연호를검거하야즉시주재소에류치됴사하는중이며싸라서권긔리철문이란자의종적을계속엄탐중이라더라(호남)

良心苛責으로

鐵道自殺未遂

경북(慶北)포항(浦項) 한문약행횡령사건이발각된까닭에

小兒의溺水慘死

부형들은주의할세

지난십일일 오후일곱시경에 대구부(大邱府)시장뎡(市場町)일백사십일번디김덕유(金德有)의장녀금년여섯살된복동(福童)은동무명이예와뎌가죽엇다는데그의부모는날이저물도록아희가도라오지안이함으로크게소동하야수색하얏든결과를예쉬집뒤골고곳건젓스나벌서한시간이상이지낫슴으로할하게죽엇는데이급보를듯는경관은 현장에출장하야시톄를검사한후여러가지수단을써보앗스나효과가 업섯다는데 그내용을들은즉일긔가 더움으로동무를파가티목욕하다가이와가티되엿다더라(대구)

아들차저주오

일곱살먹은남자

사월팔일날밤일허버리엇소

시내도염동(都染洞)이십칠번디리종건(李鍾健)의장남리윤(李潤)이라는 금년일곱살 먹은아희가지나간십일일 오후네시경에그모친을따라 창경원구경을갓다가돌아오는 길에종로사정목 네거리에서 교통이극히 복잡함을인하야 동행하던모친을 일허버리엇슴으로그모친 역시그아희의간곳을모르고 그근처에서 방황하다가할수업시 집으로돌아온후 지금까지그아희의 종적이 묘연 하다는데그아희는얼골이 둥글고코가 납작하고살빗은 검은데검은저고리에흰바지를닙고 고무신을 시너스니그러한 아희가잇거던 그아희집으로보내주기를 바란다더라

●取消申請 五月十一日發刊貴社朝鮮日報千三百四十號에『平壤刑務所罪囚는饑餓에堪치못하여死할境遇』라題하고揭戴한記事는事實이相違함은안이라空腹에不堪하야肢倒한者갓흔것슨一名도無하니此全文을揭戴하와取消함을申請함

大正十三年五月十三日 平壤刑務所

朝鮮日報社 御中

◇◇◇잔소리◇◇◇

▲사직동정밋해서의지할곳업는 팔십로인이길에서죽엇다 늙은이괄시하는 세상이도구나▲일본어느디방에서는요괸에일본서침놀된사십삼호「잠항뎡」에탓든 장졸들이 물에잠겨죽는배에 써노흔유서(遺書)가 대단히충정스럽고 장렬하다하야 ▲그것는한데모아 인쇄를하야서 소학교어린아희들에게 난호어주고자 계획한다든가 말은번쥬구레 하지마는마츰 미국에서배일안도 결뎡된김에군국주의(軍國主義)를한바랑석권해보잔말이군▲일본에서는요사이중의원의원총선거로야단법석통인데 엇던선거운동하는 직자한낫은술을잔득먹고 집에도라와서자긔부친에게 책망을듯고,그부친을따려서죽기까지한일이잇다아비보다나라일을중하게알기때문이든가

바람맑고 달밝은밤에

피곤한뇌를씨슬긔회

恩露學校主催郊外音樂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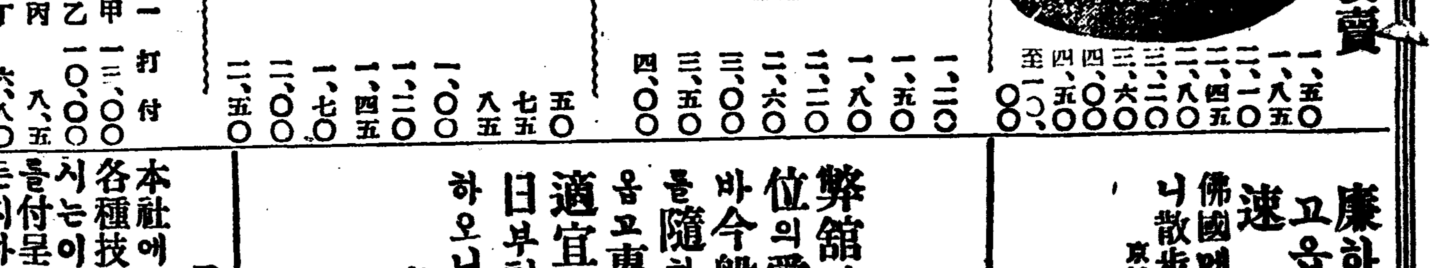
時日 五月十七、八兩日間

場所 鷺梁津恩露學校前園

出演樂士 洪蘭坡 金永煥 尹心德 尹基城外數人 京城樂隊와研樂會員

後援 研樂會 朝鮮日報社

破格的投賣



紳士形파나마	麥藁一文字	鳥打帽	學生帽
一、五〇	一、二〇	五〇	一打付
一、八五	一、五〇	七五	甲 一三、〇〇
二、一〇	一、八〇	八五	乙 一〇、〇〇
二、四五	二、二〇	一、〇〇	丙 八、五〇
二、八〇	二、六〇	一、二〇	丁 六、八〇
三、二〇	三、〇〇	一、四五	戊 三、五〇
三、六〇	三、五〇	一、七〇	
四、〇〇	四、〇〇	二、〇〇	
四、五〇		二、五〇	
至一〇、〇〇			

京城鍾路四丁目 帽子專門 廣盛帽子店

廉하고 고읍고 速한 三時間速製

佛國베이야―式電氣寫眞을開業하엿사오니散步兼하시와一次來館하심을伏望

京城鍾路三安國洞口(電車交叉點) 鍾路公設市場前

文化電氣寫眞館

廣告

弊館에서開業以來四五霜星에僉位의愛護하심을蒙하와感謝難表이온바今般에時代의要求와需應의變改를隨하와原料와方式을一新改良하옵고專門的改良「속기야기」와節候의適宜한簡易淸味香肴로本月十五日부터內外諸彦에게叮嚀供應코자하오니贊臨海枉하심을伏望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八番地

唯一館 電話本局三三三九番

고무화製造者大福音!

本社에서『고무』製造配合法과其他고무에關한各種技術을教授하오니고무靴業을經營코자하시는이는諸般設計를本社로請求하시면設計書를付呈하든지技術員이出張하야徹底히指導하든지하깃사오니少毫도躊躇치마시고郵票拾五錢을添付하시여問議하시요

京城府竹添町二丁目六七

朝鮮고무工業社 白

胎養調經丸

靈藥

수십년경험잇는 태양됴경환 제일입니다! 부인병에

藥價 一劑分 五圓

월경부됴에―대하증에―월경가나、냉증에―혈경증하부통、요통에―자궁병모든증에―오래수태치못하고、혈분에도치못하며、소화가불량하고、얼골이창백한데―일반부인―모다선효하옵니다

잡수십시오! 병업서지고 몸든든하고 생산잘하오

製造元 和平堂藥房

외로운사람들 (二五)

望洋草 作

順澈은 사월, 열흘께 주학교 리파선생으로 그학교에 교편을 잡게되엿다。 더는그형사협의주선과, 최목사의추천으로, 학교에선생이되엿다。

하나 더는, 사월초승에 필운동에서 맛날때부터, 또 동굴원에서 볼때보담 훨신수척하여젓다。 무엇인지 필운동쪽대이에서 사막구락부원(沙漠具樂部員)들이 이야기하는것을 들으면, 順澈은 실력이만흔편이아니라 인격자이며 할위인이나, 데일월급이적고, 또 데일힘이드는 리파선생이면서 거긔다가 데일말성스러운, 사학년담임선생이된것은필경사철이가 너무급히 더를교원이되게하려고 최목사에게 부탁한탓이라한다。 그래서거긔교원이된것은 다행하지만 사람들이휴평을할때 가령 파는사람이쉬돌녀쉬급히팔여고 하면 사는사람은재ㅅ치고 파는사람이급해서 더쉽글수업시싸게 팔드래도, 오히려시는사람은 파는사람이얼는팔아 느틈을엿보고다행으로여겨서, 점점더재ㅅ치고, 파는사람의 목을밧삭, 밥니여서 더참을수업시된후에 야, 마음것 욕심재ㅁ으로 싸게산다는리치가 잇다。 이를테면, 사철이란, 상인(商人)은 급히그동생을팔가로판셈음이란다。

順澈은, X학교교원이되면서더 자신이, 공부할것과, 생도에게 가르길것을 합해서 시간표를짜놋코, 밤이이슥하도록 공부한다 더의처가, 한잠심것자고, 鄕엿슬써도 건단방을 건너다보면던 등이 환하게 빗최잇것다。 어릴때부터 공부만하기로, 결심을한 더는 자긔일생의목록(目錄)중에 련애(戀愛)나 교원(敎員)가든것은 차레에넛치도 안햇섯것마는 뜻업시도, 귀여운 왕녀에게못듯니여서 하지안어야할 근심을 일야로하게되고, 리상하는 용광로(쇠 뇨리는가마)의쇠물는것은 교문(校門)을나서자 다시구경도 못하고, 뜻도안머엇든 칠판압해서, 빼토가루만먹게되엿다 더는 몃번인지 주먹을부르쥐고

「아무데도 조것만 큰제철소에서나를데려가지안나,」 하고 더의졸업한, 경성고등보통학교에가서, 교장을보고, 말해보려햇다。 하나 더가고등보통학교를졸업할때, 「공업을하드래도 거긔서밥이생길지 말지하다」 하고비웃던생각을 하면 어느덧에 교문압헤까지갓다가, 그선생을만나보지도못하고사람이 붙사라 급히 도라왓다。 더도 그런것은 일이안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할일업시, 목덕을달하지 못햇섯다。 더의, 좀수집은부드러운마음이 언제든지, 그행소하는것을생각내이지안을수업서서, 더들이엇의주선하면 될줄은알지만 참아그럴수도업섯다。

順澈은그러한것을, 새々로후회하면서,

「가서말해보드라면 어느제철소(製鐵所)에든지 가잇게될것을」 하고생각하다가 리순서도, 자긔는처저이 죠왓것마는 그아래일본사람들은다, 자긔보다배되는월급을밧고 큰 제철소에가게되엿스나 자긔는, 아모도소개해주지안는것을생각하고, 한자포자긔가는 염세주(厭世症)이이러나기도 한다。

더는이날밤에도, 내일생도들에게가르칠 교안(敎案)을생각하고 야금학(冶金學)을참고하려다가, 몹시정신이헤ㅅ갈이여수습할수가업던지,

「이런잡생각을죵고만 두어야할텐, 나는련애라는것은 나의생활뇩록에넛치두 안코 이러케순영이를생각하니 엇지하면죠흔가 어려서부터나는이럿친안코강철갓햇것만녀하면서책상설함속에잇는, 목은일긔장을 쓰내엿다。흐녀동안에하루도 걸느지안코 적어둔 일긔장을다 쓰내엿다。 더는이것더것 뒤처보다가, 데일글시가어린것을 끌나서 펴본다。 한참펴보든 더는, 무심걸에, 소리를내여서읽기 시작햇다

「삼월이십구일 청후설 (晴後雪) 내일아츰 열시 ○○분차에 려순(旅順)으로 출발하게다。 오후세시에 처가와 동모들의집들을차자가보고 부친께이십원엇고 모친께이십원엇고 누님에게십원엇어서 행리와일용품을삿다。 밤에행리를정돈하고잇슬때 형수가 파자를사가지고와서준다 밤에행리를정돈하고나니 장씨(이후부터는 복순이라고하지말고 장씨라존칭하자 사랑하는부부간에는서로 존경하는것이죠흐니)올더라。

「웨우는가하고무르니 참을여고해도 참을수업다고하더라

新舊文藝會

安邊進學會主催로新舊文藝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預定期日인卽本月八日은雨天으로因하야翌九日上午十時부터鄕校風詠樓上에서開催되엿는데當日出品은書帖百十點, 國語百五點, 漢詩百六十三點, 論文四十九點, 總合四百三十二點이엿스며 當日은預히廣濶한鄕校構內西齋에展覽하야一般觀衆의眼目을驚動케하엿고又하야風詠樓上에서讌席을開하야冠童三十餘名의四書三經의拜講이有하야儒敎의精神을發揮하엿스며또한漢詩와論文은各其分科로審査하야等級으로써登格의爭先을試하야嚴莊히施賞式을行하엿스며當日觀覽者는無慮二千餘人이會合하고各校學生三百餘名이參集하야文藝를崇尙하야新舊文化의勞에自覺하얏스며審査委員의氏名은如左하더라

國書審査委員 松尾百合之助
漢詩審査委員 尹貞彬
論文審査委員 金允求, 韓楨周
試講長 金在洪(安邊)

靈山小作總會議案

慶南昌寧郡靈山小作會에서는去四月二十八日下午一時에同會舘內에서臨時議長李周穆氏司會로第二回定期總會를開하얏는데出席人員이二百十三人에達한바가, 前會錄은書記李銀浩氏의報告가有하고本會會務報行經過로執行委員具英熙, 崔有祚兩氏가次第報告하얏스며다, 過般南鮮勞働同盟에出席代表崔有祚氏와全朝鮮勞働總同盟創立總會에出席代表徐相洙氏로부터各々經過報告가有하얏스며常務委員中으로徐相洙, 崔有祚兩氏로부터自己形便上辭表提出이有하얏스나具英熙, 河萬浩兩氏비로吳하야滿場會員의懇曲한勸告로留任하기로可決하고最後東亞日報際對하기로決議한後同七時四十分에閉會하얏더라(南旨)

市民運動會

昨十三日平壤에서開催되는平壤市民運動大會의參加團體와競技種目은左와如하더라

光文社 東興商會 朴文燮商店 沙里院廣濟社出張所 同信商會 東亞日報支局 金銀商細工組合 金昌時計店 高麗商店 勉勵青年會 貸座敷業組合 信昌木工場 世昌洋襪工場 時代日報支局 東請樓 姜用錫商店 中央印刷所 平壤製油工場 德美洋行 中央會 平壤製油工場 慶興洋靴店 慶興德商會 尹珠吉魚店 第二東洋精米所 러사쓰쓰領代理店 大同고무工場 西鮮고무工場 一信活版所 新倉團 上需青年會 第一洋靴店 池田商會 吳濟善商會 韓洋石版所 趙宜靈商店 盧致三商會 東星染工場 黃基恒商會 奕堂商會 廣興洋靴店 楊基瀾商店 牧善社 安炳勝商會等이오

競走種目

百碼直線 二百二十碼一週 四四十碼二週 百八十碼四週 二百二十碼 障碍物走高跳 走幅跳 棒高跳 半哩리데 一哩리데 一哩半場內마라손 鐵算 珠算 撤物 마라손(平壤)

醴泉教育界에曙光

慶北醴泉郡에서는郡內教育進步를圖謀할目的으로醴泉教育會를組織하야가지고事業을圓滿이進行하야우리의教育普及에多大한好影響을及하얏다함은一般이共知하는바어니와今에其事業의綱領을聞한즉左記와如하더라

一、教育에關한諸問題의研究並調査
二、教育功勞者의表彰並生徒의獎勵
三、講演會及講習會開催
四、社會敎化에關한施設又는此를指導獎勵
五、巡回文庫의經營
六、學事視察又는研究에關한事項
七、教育關係者共濟施設又는其獎勵
八、其他本會의目的을達하기爲하야必要로認한事業이라하며會員은本郡內居住한教育關係者並本會의趣旨를贊同한者로하야左의三種에分하야方今會員을募集中인데

一、名譽會員은本會를爲하야特히功勞가有한者又는多額의金品을寄付한者로서評議員의決議에依하야會長이推薦한者
二、通常會員은會費年額二圓八十錢을納付하는者
三、贊助會員은年額一圓을納付하는者이라더라(醴泉)

全州共和青年會舘

建築費約三千圓으로
宏大한會舘을建築中

全州共和青年會에서는會舘을建築하기爲하야數月前부터巨大의總會를開하고義捐金募集方法을討議하얏는데此內容을聞한즉衡平社員一同은此에對하야大贊成하고同會舘을衡平社에서建築寄附하야주기로承諾하고工事를進行中이더니突然히衡平社幹部間에意見이衝突되야一時事業이停滯되얏는고로共和青年會에서는去五日에臨時總會를開하고善後策을講究한後期於히會舘建築을하기로決議가되얏는데衡平社全州支會長權斗浩氏는本社員을會集하야反目되얏던前後事實을圓滿히仲裁하얏슴으로問題의衝突되얏든事實은全部解決되야更히會舘을建築하야寄附하기로一般可決되야建築經費二千五百圓으로當地完山町에基地一百五十二坪을買受하야委員羅加益 李京實兩氏를選定하야工事에着手中인바竣工期는六月六日로豫定하얏다더라(全州)

臨溟洞의徹底禁酒

咸北城津郡鶴中面臨溟洞契에서去二月分에洞契發起로禁酒會를創立함은本紙에報道한바어니와規則을一般會員이遵守하야오던바本洞一富豪金始珉氏는自己父親大祥에遺約金十圓을쓰納하고祭酒使用함을許하야달나함에一般會員은全部否認하기로決心하얏다더라(城津)

孝子節婦表彰

忠北淸州郡儒林에서는去九日午後一時부터當地明倫堂內에서孝子節婦其他社會功勞者에게對하야盛大한表彰式을擧行하얏다는데表彰者名은如左하더라

▲孝子柳奭俊 盧炳洙▲節婦韓寅和 [illegible]氏 朴氏▲功勞者盧寅鎬(淸州)

順天青年敎育事業

全南順天郡青年會幹部諸氏는入學難으로道路에彷徨하는兒童이며年齡超過로因하야入學치못한兒童을收容하기爲하야今年四月一日부터順天青年會舘內에다가昇平學院이라는敎育機關을設立하고前記와갓흔年齡兒童을收容하야幹部有志諸氏의熱心敎授한結果一, 二, 三, 四, 五, 六으로分級된學生兒童이一百五十餘名에達하얏슴으로敎室의狹小와여러가지의不便으로因하야莫大한遺憾으로思하던바去四月末에青年總會를開催하고前記昇平學院을新築할것과長足進步되나아갈研究를討議한結果郡內有志其他某々諸氏許에同情을밧을수밧게업다는動議로可決되는따라義捐金募集委員으로李貞鎬 李東灼 朴勝宇 韓泰善 李榮春 鄭時煥 李溫祚 羅正善 任澈鎬 朴鍾甲 元容守諸氏가被選되얏스며右諸氏가各其擔當金額을分擔하야左記와갓치할豫定이라더라

朴勝宇 李東灼 羅正善各五百圓 李溫祚 鄭時煥 朴鍾甲 李榮春各四百圓 李貞鎬 韓泰善 任澈鎬 元容中各一百圓(順天)

養蠶講習所

間島頭道溝居 吳秉直氏는 今回頭道溝朝鮮人民會長李熙來氏와金融部理事金錫健氏와協議하고養蠶講習所를設置하야來十八日부터開講하려는中인대志願者가遝至한다하며志願者는女子에게만限한다더라(間島)

平壤少年發展

平壤天道敎少年會에서는少年會를宣傳하기爲하야各地方으로活動하야오는中每土曜日마다童話會를開하야一般少年들에게滋味스러운談話가有하며또한日曜日에는少年討論會가잇서天眞爛漫한少年들은才分을顯揚하려고하며兒童遊戲에最히適當한玩具를多數히設備하며少年들에게將來를爲하며더욱이幼稚한朝鮮少年界를發展식힌다더라(平壤)

利川에童話會

利川邑美監理敎會內幼年主日學校에서는去九日下午八時부터童話會를開하고朴敬恩孃의風琴獨奏로비롯하야金明順孃의祈禱가잇슨後에兪晶濬 洪淳杓 金東植三氏의童話는六百餘名少年少女에게無限한興感을與하얏스며曹鍾吉氏의獨特한『바요린』과朴敬恩孃의獨唱으로當地初有의盛況을呈한後同十一時半에閉會하얏더라(利川)

記者團招待

咸鏡南道新任川崎警察部長은本月六日午後七時三十分에日本料理丸芳屋에서元山記者團을招待하고地方觀念을相換한後同十時에閉會하얏다더라(元山)

大運動會計畫

慶南統營郡에서는金完元、金尙用、金琪正、金璣潤、宋和楨、柳俊秀、卓翼朝諸氏의發起로市民大運動會를開催코저하야去八日午後八時半朝日町海東病院內에서發起大會를開한바地方有志諸氏가多數히參席하야左記事項을決議하고同午後十一時에閉會하얏는바住民은誰某를勿論하고加入케한다는데

加入者資格은二十歲以上男子로함
時日五月十八日 場所學友會運動場
申込期日五月十五日外지 申込金每人一圓式 人員約三百名以內
任員會長金琪正氏外二十四名(統營)

金院長公益心

全北益山郡益山面裡里三山醫院長金炳洙氏는大正十一年秋裡里에三山醫院을設立하고業務에勤勉하는바技術이裕餘하고品行이端正하야事業이日益進展하야近方患者는槃集가는터이며公益心이豐富하야當地私立光明女塾에多大한功勞가有하야昨年秋期부터同塾々長이되여모든經營에無數한努力을하던바維持方針에對하야考慮中이더니今게一千圓의資金을投하야理髮所를設置하고此에對한收入全部를光明女塾維持費에補用하기로하야方今整舍屋建築中이며理髮器具를購入次로上京한다더라(裡里)

梁醫生의特志

慶北醴泉郡龍宮面邑部里日新堂醫房主人梁德洙氏는慈善心과同情心이豐厚한青年醫生이라遠近을勿論하고차저오는病者中에貧困한病者가잇스면無料로治療한다하야該郡一般人士는稱頌이藉々하다더라(醴泉)

裡里勞農青年總會

全北益山郡裡里勞農青年會에서는去十日午後九時부터當地天道敎堂內에서第四回總會를開하고林宗恒氏司會下에會員을點名하니六十餘人이出席하얏스며益山青年會로부터朴建守非行事實交涉委員을合하야百餘人이會合하야席上에서議事를進行하얏는데林赫根氏의計報告와各部々員의報告가잇섯스며朝鮮勞農朝鮮青年總同盟에參加하얏던代表로부터報告가잇섯나매會員中으로부터朝鮮青年總同盟이成立된以上에는우리도其宣言과綱領이며規則을目標삼아團結함이當然하거날우리裡里에益山青年會와勞農青年會가分立함은地方의羞恥인즉統一함이可하다는意見을陳述하매臨場엿던金刑事는會長을부르더니順序가無한意見은그만두라고命하매員中에서會員이안이면言權이無하다하매金刑事는言權이無함을知한다하매또會員中으로會員이안인言權을不許하자는緊急特請이잇섯던바金刑事는此를더욱忿慨한態度로順序에無하면對議를못한다고主張하매會場은空氣緊張하야지며議事를進行하라時間이다간다고疾呼催促하며따라서拍手소리는場內가震動하얏섯고金刑事가退場한後更히席을定하고議事를進行하게되야規則改定委員五人을選定하고司察報告中에會員朴成祐氏는모루히네中毒者라함에其會員은爲先除名하자는決議를滿場一致로하고朴翊守의非行調査報告도有하얏섯다더라(裡里)

俱樂部主催로聯合大運動會

間島頭道溝俱樂部에서는陰曆四月端午佳節을利用하야當地領事館前廣野에서頭道溝管內各學校聯合하야陸上競技會를開催하려고至今準備에奔忙中이라는데該會의任員은如左하더라

會長姜泰淑 審判長朴正勳 司令長韓興 庶務部長李熙來 同金時汝 接對部長金錫健 同玄炳順 設備部長桑鍾默 司察部長金俊道 衛生部長關直雄 同金濟均(間島)

晋州有志懇談

私立一新高普校問題로

慶南晋州繁榮會總會에서決議된高普校速成交涉委員十人은其內幕을詳細調査한後去十日午後二時부터泉城館에서懇談會를開催하얏는데參席된有志가四十餘人에達한바臨時議長朴進煥氏의司會下에姜達永氏의交涉及調査報告를依하건대高普校期成會로旣히收入金이二十六萬餘圓에며不日內收入될金額이々萬餘圓으로學校許可願과校舍建築許可도近日提出케된다는現況이며此에對한對策의結果更히市民大會를開催하기로可決되얏는데時日과場所는總成委員會에一任하고午後五時頃에閉會하얏다더라(晋州)

小學生庭球會

元山青年會主催로元山學生庭球大會를元山府上洞青年會코ー트에서開催할豫定이라는데豫選은本月十六日午後三時로決勝은同十七日午後一時이라하며本會에參加할團體는左記事項에依하야申込한다더라

一、參加團體는一團五組、一校數團은無妨
一、選手資格은一個月以上在籍學生
一、申込期日及場所는本月十五日午後五時元山青年會內
一、參加金一圓一圓
一、抽籤期及場所는五月十五日午後八時元山青年會內(元山)

新義州府發展策

新義州府는平安北道의首府이오南北滿洲를接近한重要地點임으로旣設된道路며官公署의建物의華麗한것이京城에比하여도別로遜色이無한데더욱本年度에는停車場압綠町에對하야十三萬圓의巨額으로써道路及下水道를修築하고眞砂町과榮町사이로通한停車場前路에는廣濶한大廣場을設置하고華麗히裝飾할計劃이라더라(新義州)

軍旗拜受紀念式

去十日에(土曜)大邱步兵第八十聯隊에서는第九回軍旗拜受紀念祭祝典을際하야聯隊長으로부터各官民有志諸氏에게案內狀을發付하얏는바豫定과如히當日午前十時부터式을擧行한後正午부터는將校集會所에서祝宴이잇섯는바來賓側으로澤田慶北知事의答辭가有하얏스며盛大한饗宴을맛치고更히當日은으로離席하얏는바當日은더욱히競技運動會外지開催하야各學校聯合으로各種의競技가有하고數萬의觀衆客은人山人海를成하얏고朝鮮民報社主催로鄕人見學團을組織하야管內에案內하야多大의便利를與하얏스며同午後五時에各種의餘興을맛치고一般觀衆을退散閉會하얏더라(大邱)

全朝鮮自轉車大會

去十日에全州全北日報社에서는全州市內에서約一里되는德津池畔에서全朝鮮自轉車競走大會를開催하얏는데京城其他各地方에서一流選手가多數來會하고當日은陰曆四月初八日임으로觀覽客이無慮五六千名에達하야盛況을呈하엿더라(全州)

代書業組合設立

元山代書業者는何等의機關이無하야親睦이疎遠함을遺憾으로生覺하고今般元山에營業塲所를置한朝鮮人、日本人代書業者가總議한結果代書業組合을組織하고同業者間에親睦을爲主하며모든異性을一致하기爲한다는데組合長은鄕久保稻吉副組合長은李濟善氏로推選하얏더라(元山)

光明學院有望

間島頭道溝居李仙民氏以下幾人의同情으로光明學院을設立하고一般子弟를敎育하는中이며將來完全한中等學校로昇格할計劃이라더라(間島)

寄附募集員巡廻

間島東興中學校寄附金募集委員崔明極 韓敏行兩氏는咸興 定平 北青三個處에巡廻하야多方面으로活動한結果募集額이多數에至하얏는데氏名及金額은如左하더라

咸興

洪聖淵 高志英 金昇煥各五十圓 金寶鉉四十圓 李載肇二十圓 李龜泳十五圓 韓泳鎬 安基恒 劉七石 毛鶴顯 李明道 李弘國 石璜根 金弘奎 李學奎各十圓 朱明煥六圓 朴漢燮 朴南允 金相鶴 金文善 金廣善 金國綸 楊厚根 金書熙 高衡璜 曹喜明 李重根 黃恒禎 濟衆局 金洙根 都順浩 金致謙 韓國瑞 韓冕銓 張昇河 李用根 韓啓賓、韓延性、崔斗千、李鎔郁、李兌應、李鎭燮三圓、金鐘基、盧炳琳、李泰淳、魏茂煥、韓珏彦各二圓、安正奎、韓昌道各一圓

定平

金昌[illegible]五十圓 徐演九 金東遠三十圓 金斗鉉 韓秉斗各二十圓 李觀翼 趙承元各十五圓 金基源十二圓 金成吉 金仁煥 朴大烈 韓禎燮 韓秉璇 韓擊英 韓熙英 洪映澤 元東都 崔鳳舜 崔永壹 布德垠各十圓 李榮萬 李自鉉各七圓 李鳳燮 梁自謙各六圓 韓鐸英 李寶炳 金宗彦 金南徹 咸洪澤 李槿璉 吳基善 韓宗淑各五圓 李升煥 鄭允翊 韓錫玖 金亨弼各二圓 金致煥一圓六十錢 姜忠幽 李秉琳 韓履泳各一圓

北青

趙良善三十圓 李承嘉二十圓 金明信 弓明鎬 徐炳綸 金顯璽 成秉昇 朴東河 崔明均 許璇各十圓 韓鐸琳 鄭顯禹 金桂昌 金庚蘊各五圓 趙正鎬 李年河 張南厚 李炫穀各二圓 高錫奎 趙基哲各一圓(咸興)

咸興個人庭球大會

競技場所 朝鮮鐵道코ー트
競技時日 五月十七日(土曜)午後一時
申込場所 本會事務所(東亞書林)
申込期限 五月十五日外지
加入金 每組에五十錢(申込時納附)
用球 角一뽈

主催 咸興體育會

社告

今般左記處에支局設置하고局員을如左選定하얏사오니諸位照亮爲要

支局位置 春川郡內本町
支局名稱 朝鮮日報春川支局
局員職氏名
支局長 林憲榮
記者 全炳壽

朝鮮日報社

本報大邱支局管內諸氏의購讀代金中二月末日外지의分은現大邱支局總務金洪默氏에게支拂하시되金洪默氏의實印이無한領收證은無効로認定하나이다

朝鮮日報大邱支局長 金昇默

五月十日부터四日間公開
米國나소날會社 特選名畫公開
人情社會劇 人世의十字街 全六卷
獨逸도란스오사양會社空前의力篇
名監督베다벤르후에르나氏大傑作
名花아크네스트락푸孃
名優오ー케ㄴ커로에푸르벨氏主演
絕世悲劇 에리사베쓰女王 全十一卷
豫告
五月十六七日頃上映
米國大베ㄱ스會社超特作品
메리ー카ー夫人大力演
人道的大社會劇 오ー버ㄷ히ㄹ 全十一卷
『母性愛』『母의犧牲的精神』
『母의理解하는理想的孝化』
日活特約 優美館 電話光化門三九五番

◎五月十四日(水曜)부터四日間
新寫眞全部差換
松竹날
實寫 파나마運河 全一卷
家庭劇 뷔니쓰의一夜 全六卷
米國메도로社特作品
戀愛劇 條件잇는색씨 全六卷
獨逸메도로社特作品
名優하리쎼루氏大力作
大連續大探偵 無頭騎手 全二十篇四十卷中 第三回四卷上場
◇……豫告……◇
近日大公開名畫
世界的大作品 世界의心 全十三卷
近日公開大連續名畫
世界的大連續 十八日間世界一週 全十二篇二十四卷
來週升社날公開大名畫
文藝劇 處女心 全八卷
升社 松竹 特約 團成社 電話光化門九五九番

星製藥のペネル博士

성제약의쎄네루

一 世界第一의佛蘭西化粧品製造會社長의推薦에係한쎄네루博士가我星製藥에來하야舶來品보다優越한白粉을作하는것이大評判이되엿슴니다、

二 별표美化粧品은輸入稅음는舶來品이라하야昨今의賣行은實로與旺이되여잇슴니다

별표美水白粉 定價 小 卅五錢 大 六十錢
별표美練白粉 定價 三十五錢
별표美固練白粉 定價 七十錢

資本金五千萬圓
星製藥株式會社
東京